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인천 개최

명품도시 인천의 가치 선진의식 시민과 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G-20 정상회의에 앞서
그 첫 출발인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 인천의 주인공은 바로 인천시민입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미소, 배려하는 여유, 교통수척 실천 등
작은 실천이 글로벌 인천을 만드는 디딤들입니다.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

일시: 2010. 2. 26(금) ~ 28(일)

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2010년 2월

굿모닝인천



February 2010

CONTENTS



03 2010 窓 휴대전화는 죽어서 '사랑'을 남긴다

04 Focus G20 재무차관회의

06 설특집 I 인천의 전통문화 공간

10 설특집 II 전통의 맛

14 Green City Incheon 국립생물자원관

18 Culture 한울소리 타악 총체극 '파동 2010' 외

22 Old but New 알개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듯, 인현동

26 2014 하나되는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30 정보뱅크 창업, 부업, 온라인 학습기관

34 특별기고 고인들과 151층 빌딩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도시

36 From 1950 to 2010 6·25 전쟁 속에 꽃 핀 인천 문화예술

38 사람과 사람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이주민' 외

40 알뜰한 주부들의 노하우 "설 준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결하세요!"

41 굿모닝인천 전자판 발행 손끝으로 보는 인천

42 History 역사 속 월미도 파노라마

44 시정뉴스 '자연경관, 문화유적 연계한 강화나들길 개설' 외

48 시의회뉴스 '사랑나눔 장학증서 전달' 외

50 Info Box '가족방문상담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켜요' 외

54 독자마당 '복권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

55 김치찰락 '눈발 위 토끼 두 마리' 외

56 독자로부터 온 편지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인천에' 외

57 퍼즐 인천바로알기 퍼즐

58 영·중·일어로 인천배우기 설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26



휴대전화는 죽어서 '사랑'을 남긴다

아이폰, 스마트폰... 6개월을 주기로 새로 나오는 신형 휴대전화. 그만큼 그들의 수명은 짧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금속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우리시는 10개 구·군별로 폐휴대전화와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운동을 벌인다. 폐휴대전화는 '도심 속 금광'이다. 버려진 휴대폰에서 금, 은, 구리 등의 금속을 추출하면 대당 2천500~3천400원의 가치가 발생한다. 이 점에 착안,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에 나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집된 선풍기와 드라이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은 재활용업체에 판매,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쓰게 된다.

2010. 02 Vol.194



Cover Story

설 명절이 있는 2월에 G20 재무차관회의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그림 한윤기

*발행처 _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_ 2010년 2월 1일

*발행인 _ 인천광역시청

*편집인 _ 공보관 조동암

*편집장 _ 유동현(뉴미디어 팀장)

*취재 _ 편집위원 이용남, 정경숙, 김윤경

*사진 _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_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_ 성광디자인(주)

*인쇄 _ 통일정보인쇄(주)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_ ☎ 032-440-8306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송도 추천

우리가 G20정상회의에 앞서 처음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세계도시축전 개막 행사에 참석해 “G20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각국 정상들이 송도를 다녀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09년 8월 세계환경포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송도를 각국 정상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개최지 선정의 신호탄이었다.

G20재무차관회의는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으로서 치르는 첫 번째 회의이고, 2010년도 주요 논의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회의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앞으로 진행될 G20 재무장관회의 및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G20정상회의 참가자 위한 인천투어 제안

재무차관회의 일정은 2월 26~2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회의는 토론(discussion)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진행되는 부대행사는 없다. 송도컨벤시아 주 회의장인 그랜드 볼룸은 인천바다와 인천대교를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됐다.

재무차관들은 1박2일간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들어오는 27일부터 끝나는 28일까지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기에 점심이나 저녁시간 따로없이 워킹런치, 워

킹디너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다.

우리는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에 인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G20 회원국에서 참가하는 재무차관들은 180~200명 선이지만 각국의 기자단, 미디어 매체들을 합하면 5,6백명의 인원이 송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기간 내내 CNN, BBC 등 세계주요 방송을 통해 50억명에 이르는 G20회원국민이 한국과 인천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인천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일정이 빡빡한 정상들의 일정을 감안 인천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급 투어코스를 개발했다. 코스로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 65층 전망대→통합지하공동구·쓰레기자동집하시설→인천대교로 이어지는 1시간 30분 코스이다.

G20참가자 및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투어코스도 상시 운영된다. 우선 송도~영종코스, 송도~월미도~개항장 코스, 인천바다코스, 인천강화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G20정상회의 준비단에 인천 투어코스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준비단은 정상과 배우자대상 투어는 일정조정이 어려우나 미디어관계자에 대한 투어는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긍정,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G20재무차관회의 세계의 눈, 인천에 집중된다

2010년 11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격(格)'을 한단계 드높일 글로벌 이벤트가 열린다. G20정상회의가 바로 그것.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관련 주요 회의는 재무차관회의 2회, 재무장관회의 2회, 사전교섭대표회의(Sherpa) 2회, 정상회의 1회 등 총 7회가 잡혀있다. 그 출발점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G20재무차관 회의.

G20정상회의는 아직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하지 않고 남·북한을 정확히 구분짓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국제회의이다. 올해 제일 먼저 열리는 G20재무차관회의는 인천을 전 세계에 홍보할 절호의 찬스이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느끼다, 감응하다

옛 향기 가득 _ 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 부근 도호부청사에 가면 선인의 기품이 배인 고건축 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봄비는 차와 사람들로 소란스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다.

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牧)과 하급기관인 군(郡)·현(縣)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왕권의 상징이었던 객사와 동헌 일부가 보존되어 있으며, 도호부청사에 객사·아문·동헌·공수 등 7동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다. 객사는 임금의 위패를 모시던 곳으로 그만큼 전망이 뛰어나고 몸체가 화려하다. 솟을대문 형식의 독특한 지붕에 한국 고유의 고아한 멋이 흐른다. 아문은 관아의 정문으로,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듯한 검푸른 빛의 팔작지붕이 인상 깊다. 동헌은 부사의 집무실로, 당시 지역 최고 실력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기품과 위엄이 서려있다.

인천이씨의 뿌리를 찾아 _ 원인재

편의를 좇아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세상 속에서 대쪽같은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인천이씨의 중시조 이허겸의 묘려(墓園)인 원인재다.

원인재는 정통 양반 사대부 집안의 가옥양식에 따라 지어진 원인재, 돈인재, 율수재, 승휴당, 명인당 등 5개의 독립된 건물들로 이뤄져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팔작지붕을 이고 있는 원인재는 우아한 기품이 흐른다. 원인재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만 오르면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허겸의 묘가 나온다. 1천70여

년의 세월을 비밀스레 간직하고 있는 이 묘는 고려시대 담장묘 형식을 하고 있다. 묘에서 내려와 원인재와 승휴당 건물의 뒤편으로 가면 물고기가 노니는 작은 연못이 나온다. 연못 하나에도 고택 특유의 멋과 여유가 서려 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돈인재는 위풍당당한 풍채가 돋보인다. 또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마루를 내어 간결하면서도 시원한 멋이 흐른다.

선비의 기품 흐르는 _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이곳에 가면 아직도 옛 선비의 고매한 정신과 기품이 숨쉬는 듯하다. 인천에는 인천향교, 부평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 등 모두 네 개의 향교가 있다.

강화도 교동면에 있는 교동향교는 고려 1127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로 알려져 있다. 처음 화개산 북쪽에 세웠던 것을 조선 중기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1980년에 복원하였다. 부평·강화향교도 거의 같은 무렵에 세워졌다. 강화향교는 강화여중·고등학교의 품에 오롯이 안겨 있다. 향교 원편에는 세월이 커져이 쌓인 하마비(下馬碑)가 향교의 위엄을 대신하고 있다. 계산동에 있는 부평향교는 도심속 홀로 고아한 자태를 뽐낸다. 조선시대 부평지역의 교육을 담당했던 곳으로,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나지막한 벽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국 고유한 멋을 풍긴다.

도호부청사 왼쪽에 있는 인천향교는 도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크다. 그곳에 가면, 먼 옛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익히고 풍류를 논하던 선비들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인천에서 오천년 역사와 호흡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모처럼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간다. 과거의 향기가 고스란히 서린 전통공원부터 옛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예절원까지. 아이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와 만나는 소중한 경험으로, 어른들에게는 그리웠던 추억을 되돌아보는 여유로 다가올 것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見

보다, 보이다



자연과 전통의 어울림 _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

월미도 전통정원지구는 행궁(行宮)이 있던 조선시대의 정원양식을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재현해 놓은 전통공원이다. 궁궐정원에는 창덕궁 후원의 연못 부용지와 연꽃 가득한 못애련지 등이 시공간을 초월해 펼쳐져 있다. 또 별서정원에는 전남 담양의 소쇄원과 경남 함안의 국담원 등이 고즈넉하게 드리워져 있다. 자연 안에서 관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옛 선비의 여유와 기쁨이 느껴진다. 민가정원에는 안동 하회마을의 종가인 양진당을 비롯해 전통민가가 재현돼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서민들의 농가로, 흙으로 만든 집과 농작물이 싱싱하게 영그는 밭, 원두막이 있는 풍경에서 한민족의 소박한 정서가 전해진다.

마천루 속 옛 정취 _ 미추홀공원

송도국제도시 한가운데에 푸르게 펼쳐진 미추홀공원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공원이다. 미추홀공원은 비류건국신화

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대 독립국가인 미추홀왕국의 역사를 구현하고 있다. 인화루에 올라 공원을 내려다보면, 빌딩 숲 사이에 내려앉은 고전적인 정취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을 이고 있는 정자와 연못 위 아름다운 누각을 보노라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든다. 열린마당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열두 마리 동물들로 이뤄진 십이지신상이 위풍당당 서 있다. 사람 몸에 동물의 얼굴을 한 각각의 모습이 엄숙하면서도 재미나다. 공원에 연못이 드리워져 있으며 곳곳에 소나무와 갈대, 야생초가 자라고 있어 푸른 휴식은 덤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_ 화도진공원

화도진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역사적인 곳으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1982년 이곳에 기념표지석을 세웠으며, 1988년 동헌·안채·사랑채·전시관 등을 세워 옛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동헌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재현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읊고 있다. 안채와 대청마루에는 보료, 삼층장, 탁자 등 전통 유물들을 진열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전시관에는 옛 군인들이 쓰던 모자와 갑옷, 화포 등 600여 점의 유물이 시간을 거슬러 전시되어 있다. 화도진공원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전통문화 행사가 열리고, 봄이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기념하는 화도진축제가 펼쳐진다.



取

취하다, 받아들이다

변치 않을 가치를 배우다 _

갯벌문화관 · 다레원

요즘 세상은 참 빨리도 변한다.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한다.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에 있는 갯벌문화관과 다레원에서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옛 문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를 진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가천문화재단이 협약을 맺고 무료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올해 운영하는 강좌는 모두 18개, 3개 기수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 가운데 전통문화강좌는 도예·서예·생활다레·대금과 단소 등 모두 10개다. 강좌를 들으려면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18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갯벌문화관 833-2600, 가천문화재단 460-3460, www.gachon.or.kr



바른 어른으로 자라도록 _

가천어린이예절학교

전통문화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가천문화재단은 매년 3월에서 11월에 7세 미만의 어린이단체와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가천어린이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예절과 놀이 등을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익혀, 예의바르고 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가천어린이예절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통 예법에 따라 직접 다기를 다루고 차를 우려 마시는 '차생활예절', 어른을 대할 때의 자세와 절하는 법 등을 배우는 '전통예절', 줄다리기·투호·제기차기·지게지기 등을 체험하는 '전통놀이' 등이다. 강좌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 단체나 보육기관은 가천문화재단으로 사전에 문의한다.

문의: 가천문화재단 460-3460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_ 인천예절원

요즘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연을 날리고, 어른께 인사하는 법을 잘 모른다. 아이들은 컴퓨터게임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더 익숙하다.

인천예절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는 믿음으로 한국의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예절교육은 유치·중등·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일문화체험과 이삼일간 예절원에 머무르며 전통문화를 배우는 예절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인사예법 익히기, 가족·사회·학교 예절 배우기, 다도·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하기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성인들에게는 의전의 기본부터 인사·부부 예절 등을 가르치고 있다. 장 담그기·떡 만들기·나물무치기 등 전통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좋다.

문의: 인천예절원 464-8254, www.incc.or.kr



떡은 덕(德)이요, 사랑이라



인천의 오래된 떡집 순례

설이나 명절엔 빠지지 않고 먹었던 떡. 찹쌀떡, 가래떡, 영양떡, 두텁떡 등 떡의 종류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지금처럼 먹을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떡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제사나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고, 액막이에도 사용되었으며 경사스러운 날에는 별식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옛 속담에 ‘밥위에 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떡은 밥보다 더 맛있는 별미 음식이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한 포토저널리스트

70~80년대만 해도 명절즈음의 떡방앗간은 유달리 바빴다. 떡을 만들기 위해 쌀, 콩을 뺨으러 오는 아낙네, 들기름, 참기름을 내리러 오는 할머니 등... 떡방앗간은 항상 문전성시였다. 구도심의 중·동구 일원에만도 예닐곱 군데의 오래된 떡집들이 있었지만 과자와 빵에 밀리고, 구도심 재개발, 쌀·유류 파동, IMF 한파 등을 못이기고 하나 둘 사라지고 말았다.

떡은 덕(德)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떡을 만드는 일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일과 같다. 모진 세파를 이기며 전통의 맛을 잇고 있는 오래된 떡집들을 찾아가 본다.

#전동떡집 - 전분 입힌 찹쌀떡의 명맥이다

동인천역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방향으로 걷다 삼치골목에 들어서 10m정도 걷다 골목길로 들어서면 단층 시멘트건물을 만나게 된다. 전동떡집. 길을 잘 알거나 원래부터 이집에서 떡을 해먹지 않고는 골목의 구석에 자리잡은 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곳이 60년 가까이 찹쌀떡만을 만들어 온 전통떡집이다.

시어머니에 이어 대를 이어 찹쌀떡을 만들고 있는 며느리 한영화(65) 씨는 시어머니가 워낙 음식솜씨가 좋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찹쌀떡 만드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주인장 한영화씨의 손은 찹쌀떡을 찍어내는 기계이자 저울이다. 그녀가 한줌 띄어낸 찹쌀반죽과 팔은 무게와 모양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집 찹쌀떡의 맛은 좋은 재료와 손맛에서 나온다. 국내산 질 좋은 찹쌀과 팔을 이용해 찹쌀을 찧고, 팔을 고와 앙금을 만든다. 팔에는 황설탕 외에는 일절 다른 것은 넣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불에서 팔을 고와내고 무명체에 받쳐 고운팔만을 다시 걸러낸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좋은 재료와 정성이 빚어낸 결과다.

주인장 한영화 씨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나쁜 것을 절대 써서는 안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찹쌀떡을 사가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70~80년대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때나 명절때면 찹쌀떡을 사방에 퍼다 날랐을 정도로 장사가 잘됐고, 찹쌀떡을 사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도 서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문이 줄을 잇고 있을 정도로 이집 찹쌀떡 맛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루전에 주



문을 받고 다음날 찾아가야 한다. 배달은 하지 않는다. 주인장 한영화 씨는 주문받은 양만 만들어 그날 그날 판매한다. 한영화 씨는 “우리집떡은 깎아주지도, 덤도 없고 배달도 없지만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빚기에 찹쌀떡맛은 어디에 내놔도 일등”이라고 말한다.

떡은 30개 1만8천5백원, 50개 3만원, 100개 6만원이다. 설날 떡은 설 2주전부터 예약을 받는다. 전화: 772-2553





창영떡집 - 영양떡, 콩고물 입힌 찹쌀떡이 주 종목

동구 창영동 인천세무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창영떡집. 그럴듯한 간판도 없이 바깥 유리문에 스티커로 창·영·떡·집이라고 붙여있을 뿐. 외관상으로 보면 떡만드는 집이라고는 보이지는 않지만 59년간 떡을 만들어왔다. 주 아이템은 콩고물을 입힌 찹쌀떡과 영양떡이다. 할머니, 아버지에 이어 손자가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다.

떡집 운영을 맡고 있는 손자 박원석 씨(36)는 아침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8시나 돼야 하루 일을 마감한다. 이 집 역시 강화교동에서 생산된 쌀과 찹쌀, 국내산 팥으로 떡을 만든다. 좋은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지니 그 맛은 물론이나 마나다.

이 집은 콩고물을 입힌 찹쌀떡과 영양떡이 유명하지만 그 외 다른 이바지떡, 설기떡 등 주문이 들어오면 모든 떡을 방앗간을 갖춘 이곳에서 만들어 납품한다. 떡모양은 떡카페나 시중 떡집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고 포장도 그럴듯하지는 않지만 투박한 우리네 전통의 맛을 살리고 있다.

주로 주문이 많지만 콩고물 입힌 찹쌀떡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판다. 콩고물 입힌 찹쌀떡은 쫄쫄득득한 맛과 콩고물의 고소한 맛이 그만이다. 떡집의 일은 고되고 힘들다. 하루17~18시간을 무거운 쌀과 떡을 들고 나르는 노동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곳은 남자 4명이 일한다.

현재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자 박원석씨는 13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3년 전부터 떡집을 맡아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찹쌀떡은 30개 1만3천원, 60개 2만5천원, 90개 3만8천원이다. 10만원 이상 주문해야 배달된다. 문의: 773-8015



성광방앗간- 시인이 사강과 정성으로 빚은 떡

아버지대인 1956년에 떡방앗간을 시작했다는 성광방앗간. 신포시장 닭강정으로 유명한 원조집이 있는 골목으로 쪽 들어갔다 중간의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있는 작은 방앗간이다. 아버지, 형남에 이어 6형제중에 막내이자 떡 만드는 시인으로 유명한 이종복(48) 씨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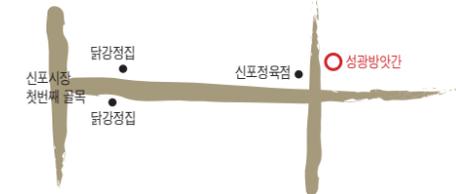
이 집은 주로 시장에서 떡파는 집들의 재료를 대주는 일과 주문받은 떡을 납품하기 때문에 시중의 모든 떡을 다 만든다. 전통방식으로 떡을 만들기에 떡 모양은 요즘 나오는 것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이웃이 먹는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낌없는 재료, 정성은 듬뿍 들어간 웰빙 떡 그 자체다.

주인장 이종복 시인은 떡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떡은 가래, 설기, 절편 등 기본적인 떡들이라고 한다. 간이나 양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 떡이 찌거나 싱거워 맛이 안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옛날 방아를 쪼들고 크고 거대한 기계들은 없

지만 쌀을 불리고, 쌀을 뺏아 아직도 직접 손으로 떡을 만들어 낸다.

주인장 이종복 시인은 낮에는 떡을 만들지만 밤에는 시 쓰기, 신문사 칼럼, 원고작성에 몰두한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다른 곳에 비해 푸대접받고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 시작한 일들이 현재 그의 다양한 직함을 만들었다.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 대표, 개항장역사·문화연구소 대표, 작가회의 시분과 이사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들이 지금은 자신에게 호재만 안겨주고 있다고 자랑한다.

떡만드는 일을 할수록 파스를 붙이는 면적이 늘어간다는 이종복 시인. 고되고 힘든 노동이 그의 시속에 살아 생생히 움직이고 있다. 문의: 772-5093



신포시장 찹쌀떡 할머니 권태순씨



신포시장 닭강정 골목 한켠 좌판에서 60년간 대를 이어 찹쌀떡을 팔고 있는 권태순 할머니(76). 아침 3시에 일어나 팔을 삶는 일을 시작해서 아침 8시30분이면 신포시장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찹쌀떡을 판다.

친정어머니가 36세부터 신포시장에 나와 찹쌀떡을 팔기 시작해 76세에 돌아가셨고, 권 할머니도 50세에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26년째 찹쌀떡을 팔고 있다. 권 할머니는 찹쌀떡을 좌판에서 만들어 판다. 콩고물을 입힌 찹쌀떡이다. 장사는 옛날보다 못하지만 할머니의 손맛을 알아본 사람들이 주로 사간다고 한다. 모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맛은 일품인 찹쌀떡이다. 권 할머니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 촛불하늬를 밀

에 킨 스텐레스 의자를 온돌삼아 추위를 견딘다. 할머니의 찹쌀떡은 몇 개 안남은 할머니의 치아처럼 세월의 흔적이 서려있다. 할머니의 소원은 사람들이 찹쌀떡을 지금보다 더 많이 먹는거다. 할머니의 좌판에 더 많은 손님이 들기를 기원해 본다.

그 숲에서 우리나라 마지막 여우를 보다

무려 985종 4천600여 점,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우리 땅, 우리 하늘,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거나, 이제 보기 힘든 어진 생물들의 표본도 있다. 사람들은 이 곳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새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지혜와 너그움을 배우고, 자연의 무한한 가치를 일깨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장수하늘소, 금개구리, 저어새, 뜰부기... 한때 뒷동산 푸른 숲 맑은 물에 살고 파란 하늘을 날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땅에 사는 고유 자생 생물을 하나하나 그러모아 소중한 간직해 놓은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자생생물전문 전시관 '국립생물자원관'이다.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연구, 보전하고 있다. 생물자원관 내 수장·연구관은 1천100만점 이상의 생물표본을 소장할 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수장시설을 갖추고, 생물표본을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첨단 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시·교육관은 한반도의 고유 자생식물 985종의 식물 표본 4천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3천㎡ 규모의 전시공간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을 비롯해 곳자왓생태관,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숲과 하천, 바다, 갯벌 등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재현하여 자연의 숨결이 살갓에 닿듯 가까이 느껴진다.

제1전시실

초록별 생명의 숨결 가득

전시·교육관 1층에 자리한 제1전시실에는 한반도의 생태계가 온전히 담겨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고유생물과 자생생물의 식물표본을 원핵생물·원생생물·진균계·식물계·동물계 등 5계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원핵생물과 원생생물 및 진균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은 확대된 모형과 현미경사진을 통해 보여진다. 마치 시계바늘을 확장시절 과학시간으로 돌려놓은 듯 흥미롭다. 또 대형 해조류와 식물, 동물 등을 식물표본과 패널, 모형 등으로 보여주어 생물의 특징과 분류체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제주고사리삼, 금강초롱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 6개속(屬)의 청초한 아름다움이 마음을 빼앗는다. 조류 코너에서는 텃새와 철새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새들의 모습과 이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날개가 잘리고 발가락이 없는 새들이 눈에 띈다.



어흥~ 웅맹한 호랑이와 만나요

'어흥~'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발을 굴러 달려올 듯하다. 국립생물자원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웅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 호랑이해를 맞아 이번 달 28일까지 호랑이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 기간 동안 그저 보기만 했던 호랑이 표본을 직접 만질 수 있으며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다. 또 호랑이 표본 외에 까치 호랑이 민화 등 호랑이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호랑이 그림과 발자국 모양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깜짝 즐거움도 있다. 힘과 용기가 넘치는 호랑이는 예로부터 신성시 되어 왔다. 2010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와 만나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새해 소원을 빌어보자.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1층에서 나가는 문을 열면 기획전시실이 나온다. 기획전시실은 매년 2회 이상 우리나라의 자연과 자생생물을 주제로 특별·기획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는 '생명이 깨어나는 강(江)'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 기획전은 생명의 근원인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간에 의해 상처 입은 하천을 되살리고자 기획됐다. 전시실 안에는 수달, 큰 덩불해오라기, 갯벌 등 하천에 사는 생물들의 표본 93종 2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 나라 안팎의 생태하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밖에 학생들이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생명을 보듬고 자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지금 초록빛 지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상처 입고 파헤쳐지고 있다.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생물자원은 메말라가고 있다. 이러한 때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을 모으고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초록빛 세상'을 꿈꾸며.

이곳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들은 모두 로드킬 당하거나, 자연사 혹은 환경오염이나 질병으로 인해 죽은 것들이다. 그 때문에 어부의 그물에 잡힌 바다사자, 중금속에 오염된 새를 먹고 죽은 독수리 등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다. 포유류 코너에는 우리나라 전시관 가운데 가장 많은 23종의 자생포유류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다는 여우의 애처로운 눈빛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제2전시실은 이와 함께 생물자들이 우리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생물자원의 무한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제 2전시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1층 제1전시실을 둘러본 후 계단을 올라 2층 제2전시실로 간다. 이곳은 디오라마(Diorama)기법으로 우리나라의 숲과 하천, 바다, 갯벌 등을 재현하고 있어 마치 자연의 품에 안긴 듯 편안함 느낌이다.

제2전시실은 제1전시실에서 살펴 본 생물들이 하늘과 땅, 물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큰부리바다오리, 붉은배오색딱따구리 등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표본들이 인상적이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이와 함께 221종의 멸종위기 종 사진과 표본들을 전

꽃자왈생태관·기획전시실 자연의 품에 안기다

제2전시실을 둘러본 후에 꽃자왈 생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꽃자왈이란 화산암이 많은 제주도 한라산 중턱의 지형을 가리키는 말로, 생태관으로 들어서자 마치 공간을 뛰어넘어 제주도 산 중턱에 와 있는 듯하다. 유리돔 안에는 개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녹나무 등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초록빛 싱그러움 기운을 내뿜고 있다. 푸른 숲을 눈에 담고 청아한 물줄기 소리를 귀에 담으며



Tip* 국립생물자원관 이용 포인트

1. 머릿속으로 생물자원의 생태를 그려요

제1전시실은 한반도의 생물자원들을 전시하며, 제2전시실은 제1전시실에서 본 생물들이 어떠한 자연환경에 살며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준다. 이 동선을 따라 자원관을 관람하면 생물의 생태와 그 가치를 이해하기 쉽다.

2. 보고 배우는 전시관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와 어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청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또 전시시청각실에서는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료로 상영한다.

3. 음성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 음성안내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1층 로비의 안내데스크에 문의한다.

4. 관람 매너는 필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전시관에 음식물을 들여올 수 없으며, 전시품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 플래시를 터트리며 사진을 찍는 것도 금물이다.

Information



※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면, 인천지하철 계산역, 검암역 앞 등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람시간 : 3월~10월 : 9:30~17:30(매주 월요일 휴관)
11월~2월 : 9:30~17:00(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문의 : 국립생물자원관 ☎ 590-7000(www.nibr.go.kr)

Music & Play



인천시립합창단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시립합창단은 전임 작곡가 우효임, 떠오르는 신예작곡가 박지훈, 노방주, 김준범을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시킨다. 더불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리는 2010년 western division 초청 연주와 순회연주에 선보일 프로그램 일부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소원의 봄꽃씨', '사월 한 봄날에' 등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일시: 2월 9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enticket.com)



시립교향악단 제297회 정기연주회

첼리스트 송영훈이 인천시향과 함께 차이코프스키를 만난다. 시립교향악단의 제297회 정기연주회는 러시아 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세계를 느낄 수 있는 무대다. 베버의 서곡 오베론으로 문을 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송영훈과의 협연으로 국내에서는 자주 들어볼 수 없었던 레스피기의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풍의 아다지오」와 「로코코풍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33」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향의 정교하고 열정적인 연주로 차이코프스키의 작품 중 가장 변화가 많고 정열적인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36」을 즐길 수 있다.

일시: 2월 2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아동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

'달려라 달려 달달달'은 판소리는 아니지만 판소리의 전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여낸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 주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등 창작극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설화, 민담에 등장하는 원형들을 풍부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배우가 암행어사도 되고 악한도 되고 이야기꾼도 되고 소리꾼도 된다. 고수는 북과 양금 등 다양한 악기로 바람소리도 내고 발자국 소리도 내면서 아이들에게 틈을 주지않는 짙은 공연을 선사한다.

일시 및 장소: 2월 24일(수) 오후 4시 부개문화사랑방
 2월 26일(금) 오후 4시 부평문화사랑방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3천원
 문의: 507-5996



문훈숙의 발레이야기 <호두까기 인형>&<백조의 호수>

커피콘서트는 향기로운 커피 한잔과 함께 공연관람 외에도 무대 주인공이 들려주는 작품에 대한 해설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다. 2010년 커피콘서트의 첫 무대는 <호두까기 인형>&<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로 우아한 발레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훈숙 단장의 해설과 유니버설발레단이 직접 출연해 선보이는 차이코프스키 발레 하이라이트는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발레를 쉽고 재미있게 보여줄 것이다.

일시: 2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p> <p>인천 라이온스 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1만원 ☎ 010-2511-4374 국제라이온스협회</p>	<p>2</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전 11시,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3</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전 11시,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4</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전 11시,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5</p> <p>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 1688-6675 - (주)하늘이엔티 -</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전 11시,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파동 2010' 한울소리 타악 축제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대극장 전석 무료 ☎ 421-7900</p>	<p>6</p> <p>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 1688-6675 - (주)하늘이엔티 -</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후 2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7</p> <p>시립극단 제54회 정기공연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 오후 2시,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원 ☎ 420-2790 / 시립극단</p>		<p>9</p> <p>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420-2784 / 시립합창단</p> <p>교육체험 뮤지컬 '풀잎이와 아플로' 오전 11시, 오후 3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움 전석 1만2천원 ☎ 016-774-0014</p>	<p>10</p> 	<p>11</p> 	<p>12</p> 	<p>13</p> 
		<p>16</p> <p>플루티스트 주유숙과 함께하는 청소년연주회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원 ☎ 010-2049-5320</p>	<p>17</p> <p>커피콘서트 문훈숙의 발레이야기 <호두까기인형> &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원 ☎ 420-2027-8 / 인천&아츠</p> <p>백영규의 '가고싶은 마을' 오후 7시 부개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7-5996</p>	<p>18</p> <p>화인청소년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초대 ☎ 819-2619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p>	<p>19</p> <p>전통예술단 타투 '희망의 비나리'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6-5996</p>	<p>20</p> <p>송대관&태진아 콘서트 오후 3시, 6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B석 5만5천원 ☎ 1688-6675 / (주)하늘이엔티</p> <p>황타지 오즈의 마법사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2천원 ☎ 1688-7923 / 극단클래식</p> <p>퓨전타악그룹 '카타' 오후 3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움 전석 6천원 ☎ 760-3455</p>
<p>21</p> <p>황타지 오즈의 마법사 오후 1시,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2천원 ☎ 1688-7923 / 극단클래식</p> <p>2010 S.M. ENTERTAINMENT GLOBAL AUDITION IN KOREA 오전 9시 ☎ 02 6240-9574</p>		<p>23</p>	<p>24</p> <p>인음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주 협주곡 전국 연주 시리즈 4번째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1천원, 학생 7천원 ☎ 888-0807 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p> <p>극단마실 '달려라 달려 달달달' 오후 4시 부개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7-5996</p>	<p>25</p>	<p>26</p> <p>시립교향악단 제297회 정기연주회 첼리스트 송영훈 초청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420-2781 / 시립교향악단</p> <p>연극 '백베스' 오후 4시,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학생 1만원 ☎ 762-1246 / 극단 집현</p> <p>극단마실 '달려라 달려 달달달' 오후 4시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5-5995</p>	<p>27</p> <p>제7회 대건OB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5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초대 ☎ 010-8884-2345 대건OB합창단</p> <p>연극 '백베스' 오후 4시,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학생 1만원 ☎ 762-1246 / 극단 집현</p>
<p>28</p> <p>연극 '백베스'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학생 1만원 ☎ 762-1246 / 극단 집현</p>	<p>이달의展</p> <p>1월29일 ~ 2월7일 Computer Artist 김성희 개인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월1일 ~ 11일 최바오로(최영철)성상, 성화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월19일 ~ 25일 제10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문인화 서각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p>					



한울소리 타악 총체극 '파동 2010'

1984년 유니버설 발레단 창단멤버로 입단한 프리마 발레 Beat Company 한울소리는 년별 타악퍼포먼스팀으로 1990년 창단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기본적인 한국전통타악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에 충실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전문예술단체이다.

도전과 열정,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재즈와의 협연, 관악밴드와의 크로스오버공연 국악기 샘플링과 시퀀싱 작업을 통한 국악미디어발표회 등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타악퍼포먼스인 '리듬시티', '드림드러머스', '투투타치', '리듬정비소', '울림과 공명'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Beat Company 한울소리는 그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독특한 아이디어, 넘치는 연주력으로, 시종일관 관객과 호흡하는 파워풀한 최고의 공연 「파동 2010」을 2010년 4월 개관을 앞둔 부평아트센터와 공동제작에 나섰다.

부평아트센터의 개관전 프로젝트 <포커스인 부평>의 공모 선정작인 「파동 2010」은 Beat Company 한울소리의 2010년 초연작으로서 '문화중심도시 부평'으로의 비전을 선포하는 부평의 스토리를 담은 작품으로, 전통예술과 현대적감성이 결합하여 타악, 굿, 무용, 무예 등의 소재로 그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다.

공연일시 : 2010년 2월 5일 (금) 20:00 (약 70분) / 전석무료초대

장소 : 부평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 본 공연은 전석 무료초대 공연으로, 사전예약으로 운영됩니다.

문의 : 421-7900, 홈페이지 www.hanulsori.co.kr 으로 문의바랍니다(1인당 4매까지, 선착순마감).



정월대보름 한마당, 세계마당으로 펼친다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회장 김현실)는 2월27일(토)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주한대사부부 및 외교사절(50개국), 외신기자 등을 초청해 인천시민,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민속놀이축제를 개최한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지방 나들이를 하는 주한 외교사절들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다.

주한외교사절 초청 정월대보름민속놀이축제는 한국의 세시풍속인 연날리기, 널뛰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등을 시민들과 뒤영키며 체험하는 특별 이벤트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하여, 한국의 전통민속놀이 세시풍속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

지난해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축제 때 외교사절들은 줄다리기와 강강수월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즐거워했다.

올해는 인천의 전통문화, 문화예술공연, 한스타일 전시 등을 통하여 세계와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기회로 삼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이뤄 놓은 발전된 기반시설 등을 방문하게 하여 문화, 관광, 자원외교로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가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G20 재무차관회의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정월대보름민속놀이 개최를 통하여 G20 관려국 문화담당자도 초청하여 글로벌 도시 인천의 위상과 경제, 문화, 교육 등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행사는 인천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외교사절과 함께 민속놀이 체험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꿈나무 외교관'의 꿈과 이상을 가지며 글로벌 시티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개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듯, 인현동

동인천역 건너편의 중구 인현동은 한때 인천 최고의 변화가였다. 제물포고, 인천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던 스쿨존이었고 인천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경유하던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상가의 출입구였던 덕분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곳이다. 도시개발이 외연을 넓혀가면서 이제는 시간이 멈춰서있는 부도심으로 전락했지만 곳곳에 교복세대들의 아련한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제물포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인성여고, 인천여중, 상인천여중, 인성여중, 축현초등학교. 인현동 일대에 있던 학교들이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했다. 70, 80년대 등하교 시간에 이곳은 마치 거대한 펭귄 떼가 이동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만큼 온통 교복 입은 학생들뿐이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문구점과 체육사를 비롯해 화방, 학원, 탁구장, 사진관, 분식집 등이 성업을 이뤘다. 용동마루터를 기준으로 신포동과 경동은 어른들의 공간이요, 인현동은 알개들의 천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특히 미국 LA까지 진출한 쫄면의 고향을 자랑하듯 분식집은 한집 걸러 하나씩 있었다. 명물당, 만복당, 맛나당 등 '당'자 돌림의 분식집은 먹성 좋은 알개들의 방앗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 9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에 의해 한두 학교가 교외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남은 학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짐차 주변 상가도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했다. 이 지역이 쇠락의 결정타를 맞은 것은 '화재사건'이었다. 1999년 10월 30일 저녁 인현동 분식 골목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노래방에서 내부수리 중 화재가 발생해 2층과 3층으로 불이 번져 그곳에 있던 10대 청소년 등 5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유증으로 이 지역은 한동안 인적이 끊기며 적막감마저 돌기도 했다. 화재 발생 10년, 화상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고 축현초등학교 자리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한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별'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드나들던 별제과
서울에 종로서적이 있었다면 인천엔 대한서림이 있다. 7,80년대 젊은이들의 모임은 책방 앞에서 먼저 만나 장소를 옮기는 아날로그식 만남이었다. 동인천 지하상가 출입구 바로 앞에 있고 전철역에서 내리면 한 눈에 보이던 5층 건물 대한서림은 인천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랜드마크였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대한서림에서 일단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무슨 사정인지 끝내 나타나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며 읽은 책이 짧게는 시집이요, 길게는 소설이었다. 대한서림이 문을 연 지 어언 56년. 우리나라 책방 역사에 쉽지 않은 세월이다. 인천의 7080세대들은 이 책방에서 '씨름의 소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돌베개 마냥 묵직한 책을 구해 읽기도 했고 '꽃들에게 희망을' 같은 달콤한 책을 읽으며 사랑을 꿈꿔왔다.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며 반백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대한서



림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바로 앞에 있는 동인서관도 함께 시간을 했기 때문이다. 인천에 이런 서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현재 대한서림이 있는 건물은 원래 별제과 건물이었다. 별제과는 결혼을 앞둔 양가부모의 격식있는 상견례 자리였을 만큼 70년대 당시 인천 최고의 '럭셔리' 양과점이었다. 말 그대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별'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이 건물에는 '별'음 악감상실도 있어 음악을 통해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던 젊은이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았다. 한때 문인들이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별제과 건물은 동인천 문화예술의 한 공간을 담당하기도 했다.

새 학용품을 확보하라
인천에 백화점이 없던 시절, '학생백화점'이란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의 '해방공간' 역할을 했던 곳이 대동학생백화점이다. 1층에



는 문구점과 화방, 체육사 그리고 2층에는 DJ가 있는 분식집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이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숍 인 쇼프’의 형태였다. 아직도 ‘대동학생백화점’이란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지금은 1층에 문구점과 화방만 운영하고 있다. 50년 역사를 지닌 이곳은 1년 내내 학생들로 늘 붐볐지만 특히 3월 신학기를 앞둔 며칠 전부터 학용품과 체육복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치 포도주 매니아가 보졸레 누보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신학기가 되면 올리비아 핫세 같은 외국배우의 사진이 새겨진 새로운 스타일의 학용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아침 일찍 백화점의 문이 열릴길 기다리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쳤다. 한창 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입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줄의 꼬리가 50m는 예사였다. 전쟁을 치르듯 어렵게 물건을 확보한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 DJ가 들려주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학용품을 사고 남은 우수리 돈으로 분식을 시켜 먹으면서 서로 그날의 전리품을 내놓고 자랑하며 뿌듯해하곤 했다.

학교도 많이 떠났고 학생수도 줄었지만 대동백화점 아래쪽으로는 아직도 여러 개의 체육사와 문구점, 그리고 화방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곳에 오면 학창시절 낯익은 거리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진공관 시대의 전업사들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던 서울의 세운상가. 잠수함은 아니더라도

소형 헬리콥터 정도는 만들 수 있었던 곳이 인현동 전자상가다. 일제강점기 때 양조장 건물이었던 빨간 벽돌건물 안팎과 죽현학교의 건담을 기댄 크고 작은 전자상과 조명가게, 그리고 전업사가 오밀조밀하게 들어서있던 이 동네도 진공관 시대를 거쳐 IC, 그리고 IT 시대에 오면서 외관부터 많이 변했다.

한때 한 평이 채 안된 가게부터 2층짜리 번듯한 건물 등 30개 넘던 상점도 지금은 열개 남짓으로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가게들도 손님들의 발길을 끌며 그저 서터만 올려놓은 상태이다. ‘우주전자’, ‘대륙전자’ 같은 상호처럼 80년대 중반 대륙을 꿈꾸고 우주를 꿈꾸며 벤치정신으로 무장하고 이곳을 제집 드나들듯했던 그 공학도와 기술자들은 자신의 꿈을 이뤘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삼치 굽는 마을

인현동에서 전국구의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은 삼치거리이다. 학생교목문화회관 뒷길은 매일 저녁 고소한 삼치구이 냄새가 진동한다. 이 골목길이 삼치거리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인하의 집’이 현재의 자리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삼치와 막걸리를 팔면서 부터이다. 원래 이곳에는 후에 ‘소성주’라는 인천막걸리의 토대가 된 대화주조라는 양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술은 자연스럽게 막걸리가 나왔고 안주로는 인근 부두에서 싼 값에 팔리는 삼치를 튀겨 내놓았다. 이후 한두집씩 삼치를 곁들인 막걸리집이 들어서더니 지금은 14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업소마다 기름에 튀기거나 그릴에 굽는 등 제각각 다른 독특한 맛으로 손님들을 끌고 있는데



어느 집이든 어른 손바닥보다 큰 삼치를 2~3토막씩 한 접시에 푸짐하게 담고 있다.

이 곳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삼치와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하면서 개똥철학을 설파하고 시국을 논했던 곳이다. 세월이 지나 이제 중년이 된 그들은 이 골목을 다시 찾아 그 시절의 향수에 젖곤 한다. 막걸리 열풍 덕분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지만 3~4명이 마음껏 먹어도 1만~2만원이면 충분할 정도로 세월이 흘러도 서민적 분위기는 여전한 곳이다.

인심과 맛은 바뀌지 않았어도 거리와 건물의 외관은 많이 바뀌었다. 2001년 10월에 이 거리는 ‘동인천 삼치거리’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간판과 외벽을 치장하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화가 등의 손길을 거치면서 모든 가게의 간판이 ‘작품’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삼치 맛 못지않게 이 거리는 간판구경 코스가 되었다. 심심치 않게 방송을 타거나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피사체가 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탐방코스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불씨 한번 다시 살려보고 싶습니다”



어둡고 황량해진 인현동 골목에 얼마 전 불씨 하나 켜졌다. 내리교회 옛 정문 앞, 옛 이집트경양식집 바로 앞에 ‘작은 갤러리 성남공장’이란 문화 공간이 생겼다. 성남공장의 공장장은 오진동(46) 씨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화가이기도 한 그는 20대 젊은 시절에 이 골목을 쏘다녔기 때문에 크고 작은 추억거리가 많다. 그의 기억속에 이 거리는 언제나 활기 넘치고 재밌던 곳으로 저장돼 있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 이곳은 학생들뿐 아니라 ‘좀 놀줄 아는’ 멋쟁이들의 집합장소였지요. 이렇게 썰물 빠진 바다 같으리리곤 상상도 못했죠.”

지난해 삼치거리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총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이 거리와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이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고가며 눈여겨봤던 작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지난 7월 30일에 일을 저질렀다. 1층은 5평 남짓한 갤러리로 만들었고 2층은 생음악과 낡은 LP판이 있는 카페로 오픈했다. ‘작은 갤러리’를 표방한 성남공장 갤러리에서는 개관 이래 벌써 6번째 기획전을 가졌다. 앞으로 2주에 한번씩 전시회를 갖겠다는 게 그의 욕심이다. 인테리어 전문가답게 손수 꾸민 카페에 들어서면 먼저 천장에 눈길이 간다. 부두에서 구입한 생선계짜를 마감재로 썼다. 철저히 ‘인천적인’ 애깃거리와 문화를 덧대려고 그는 무던히도 애를 쓴다.

“이제 성남개비 하나에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이 동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인천에 문화예술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SAMARQAND, UZBEKISTAN



중앙아시아의 푸른 로마

실크로드 교역의 오아시스였던 사마르칸트는 '동방의 낙원', '중앙아시아의 로마'로 불린다. 2001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곳곳에 귀중한 문화유적들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천년 고도(古都)이다.

사마르칸트는 동서양의 길목에 위치한 숙명으로 수많은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 그중 굵직한 것만 들어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원전 4세기), 아랍인의 침략에 의해 세워진 사라센 제국(8세기), 칭기즈칸의 침략(13세기) 등이 있다.

지금의 도시는 아미르 티무르(1336~1405)가 재건했다. 그는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은 소아시아, 남쪽은 인도 북부, 그리고 북쪽은 러시아 초원지대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티무르는 사마르칸트에 도움을 정하고 세계 제일의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복 지역의 건축가나 예술가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왔다. 심지어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 인도에서 코끼리 95마리까지 끌어들였다.

유난히 푸른색을 좋아했던 티무르는 유약을 발라 구운 푸른색 벽돌로 모스크(이슬람 사원)와 메드레세(신학교)의 돔을 장식했다. 사마르칸트를 '푸른 도시'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1	2	1 황혼무렵, 성전 앞을 지나는 노새 2 화덕 벽에 붙여 굽는 빵 리뽀쉬카 3 시장 상점에 걸려있는 전통신발
	3	

실크로드의 낭만적인 오아시스 사마르칸트



길은 영원하다.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던 카라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700년이 되었지만 중앙아시아가 '자원부국'으로 떠오르자 실크로드에 다시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가 흐르고 있다. 풀 한 포기과 모래 한 알에도 동서양의 역사가 커켜이 스며있는 실크로드의 중심도시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에서 화려했던 시절의 푸른 꿈에 젖어 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1	3	5
	4	
2		

- 1 푸른 첨탑의 메드레세로 둘러싸인 레기스탄 광장
- 2 우즈베키스탄 여학생.
- 3 '구문학습' 가방을 메고있는 꼬마.
- 4 울루그베그 천문대 외부 모습
- 5 골목에 있는 노천 구멍가게



사마르칸트를 대표하는 장소는 레기스탄 광장. 500kg의 금으로 벽과 천장을 장식한 메드레세와 푸른색 타일로 치장한 45m 높이의 첨탑이 있는 화려한 메드레세가 'C'자로 둘러싸 안고 있다. 메드레세는 중세 이슬람의 신학교를 말한다. 말이 신학교이지 당시에는 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철학·역사·수학·음악 등을 연구하는 종합대학의 역할을 수행했다. 광장 주변의 탑과 사원들을 보고 싶다면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양탄자를 탄 신발뜨가 날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미나레트'라고 불리는 높은 첨탑은 '사막의 등대'다. 몇 달 동안 긴긴 사막에서 갈증과 외로움에 지친 실크로드 상인들에게는 생명의 등불이었다. 탑의 꼭대기에 밝혀진 불빛을 목표로 물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환대가 기다리는 오아시스를 향해 지친 몸을 이끌었으리라.

보물 같은 목화

사마르칸트에는 세계적인 고대 천문대가 있다. 황금기를 지배했던 울루그베그는 왕이자 천문학자였다. 1년을 365일 6시간10분8초로 관측한 울루그베그의 항성시는 오늘날의 정밀기기로 측정 한 항성시와 1분도 오차가 나지 않는다. 울루그베그 천문대 터에는 천체의 각도를 관측하는 거대한 지하시설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거대한 규모의 육분의(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를 통해 놀랄 만큼 정밀한 천문학이 이뤄졌으며 이것은 17세기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국토의 70%가 사막과 황무지이지만 교외 풍경은 녹색이 펼쳐진다. 텐산 산맥의 눈 녹은 물이 우즈베키스탄을 동서로 흐르며 젓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평야와 구릉에는 양떼와 소떼가 한가

롭게 풀을 뜯으며 목가적인 풍경화를 그려낸다. 무엇보다 실크로드의 나라답게 뿔나무 가로수와 광활한 목화밭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목화산업은 이 나라의 최대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목화를 수확하는 가을철에는 모든 학교가 임시 방학을 하고 학생들은 목화밭으로 나간다. 어디를 가든 하얀 목화밭에 수많은 학생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모습이 무척 낯설게 보였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던 중 잘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었고 이내 정체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화를 실은 트럭이 앞서 갔는데 이를 경찰 차량이 에스코트하면서 빛은 해프닝이었다. 일반 차량들은 그 목화차를 함부로 앞서 갈 수가 없다는 게 현지인의 설명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목화를 보물 다루듯 소중하게 여긴다.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려면 광활한 중국 대륙을 거치고 항량한 고비사막을 건너야 한다. 무엇보다 새도 넘기 힘들다는 텐산산맥을 지나야 한다. 그만큼 두 나라는 지리적 거리감은 있다. 먼 나라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한민족의 첫 만남은 1300여 년 전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게 패하기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고구려는 당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사마르칸트의 바르흐만 왕에게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사신 2명을 파견한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얌 역사박물관에 가면 서기 650년 바르흐만 왕의 즉위식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이 조우관(새의 깃털로 장식한 고구려의 모자)을 쓰고 허리에 큰 칼을 찬 모습으로 중국·유럽·아랍의 사신들과 나란히 서 있는 궁전 벽화를 볼 수 있다.

이후 한낱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37년이다. 소비에트연방 연해주에 살던 18만 명의 한인 동포들은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에 내동댕이쳐졌다. 까레이찌로 불리는 고려인들은 척박한 황무지 땅인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벼농사 기술을 전파하는 등 특유의 근면성으로 그 나라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 시간은 흘러 현재. 우즈베키스탄 거리에는 대우자동차의 다마스 와 티코가 물결을 이루고 사람들은 한국산 TV로 '주몽'을 본다. 비비하눔 모스크 앞에서 만난 두 꼬마 녀석이 '안녕하세요'라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그러곤 한 녀석이 돌아서며 자기 등에 맨 책가방을 보여준다. '구문학습'이란 글자가 새겨져있다. 저 가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14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던 고구려 사신이 과연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를 상상이나 해 봤을까. 이제 실크로드에는 한류(韓流)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G



실크로드의 영화 다시 꿈꾼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스탄' 돌림자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인구는 2천800만명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13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언어는 우즈베크어(국어)와 러시아어가 통용된다. 국토가 남한의 4.5배로 국토의 3분의 2는 사막과 초원으로 건조한 사막형 대륙성 기후를 보여줘 여름에는 30~40도, 겨울 평균기온은 10도 정도이다.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역사적 전통을 살려 3대 신(新)실크로드를 복원시켜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와 항공운송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중심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도 타슈켄트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화물기의 중간 기착지로 자리 잡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국~키르기스스탄~그루지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타슈켄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고두보로도 각광받고 있다. 송도유원지 인근에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진흙가마에서 갓 구워낸 빵인 논(러시아말로 리뽀쉬카)과 양고기 꼬치구이인 '사슬릭'을 맛볼수 있는 레스토랑 아미르티무르가 있다.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등

“네 꿈을 펼쳐라”

“올해는 기필코 영어 토익점수 800점은 넘으리라”.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사의 꿈을 펼쳐 보리라” 등등. 새해에 마음먹었던 야심찬 계획을 슬슬 실행에 옮길 때다. 올해는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달라진 나를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계발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기관을 노크해 보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일단 전문기관에 등록부터 하면 내 삶을 새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민들의 자아계발, 자격증 취득 등 새로운 삶에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글 이윤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시 평생학습관 제공

«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직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운영된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문강사 양성 과정은 방과후 특기적용 교사 양성과정, 영어연극·뮤지컬기획 전문가 과정, 산업기술분야 여성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다. 교육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469-1251

→ 특기적용 교사 양성과정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교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용 교육. 특기적용 교사는 급여가 높고, 시간활용이 자유로와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총 교육시간은 116시간(3개월). 점핑클레이, 북아트, 한지공예, 비누공예, 종이접기, 영어교육 등이 실시되며 수료 후 기관 및 센터, 학교 등에 전문강사로 파견된다.

→ 영어연극·뮤지컬기획 전문가 과정

육아나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영어교육과 뮤지컬 기획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어연극·뮤지컬기획 전문가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주로 연극의 이해, 뮤지컬의 이해, 송&챗&교구, 영어발음 교육 등 총 144시간을 교육받고, 인천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회, 인천관내 초등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로 파견되며 강사로서 꾸준히 일할수 있게 지원된다.

→ 특수용접·프레스 금형설계 기능사

여성고유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특수용접전문사, 프레스 금형설계기능사를 양성된다. 이 분야는 여성고유의 특성과 잘 접목되어 현재 산업기술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복지관 취업심화과정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에서는 올해부터 여성들의 취업이나 부업을 도울 수 있는 취업심화과정을 운영한다. 18세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남성도 정원범위 20% 내에서 선발된다. 이 과정은 다른 과정과 달리 직접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접수자를 대상으로 면접후 교육생을 선발한다. 접수는 2기 3월9~10일, 3기 6월 9~10일, 4기 9월9~10일이다. 문의 ☎ 440-6550-4

→ OA사무전문가 양성교육

3개월과정으로 연 4회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만19~45세의 컴퓨터 자격증 취득자 등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활용 방법을 배운다. 교육인원은 20명이고, 교육비는 3개월에 4만5천원. 교육수료 후에는 약국, 아파트관리사무소, 일반회사 등 사무직 취업이 알선된다.

→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교육

교육대상은 만19세에서 52세의 조리사자격증 취득자로 3개월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인원은 20명이고 교육비는 3개월에 4만5천원이다. 교육수료 후엔 어린이집, 학교, 병원, 회사 등 단체급식소 조리사 등으로 취업이 소개된다.

→ 프리젠테이션 자격증 교육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기획안 만들기과 프로젝트나 OHP를 통해 대중에게 시연하고 설명하는 교육을 배운다.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만 45세 이하 취업희망 여성으로 인원은 20명. 교육비는 9만원.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천시민 평생학습의 요람이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강좌는 오프라인은 유료이고, 온라인은 무료다. 각 강좌당 인원은 10~25명선. 참여희망자는 학습관 홈페이지(www.ilec.go.kr)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899-1524,5

→ 커피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과정으로 커피관련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자격증 취득을 돕는 과정.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하다.

→ 전산회계 2급

경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무에서 활용된다. 전산회계2급 자격증 획득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취득 대비과정. 한국어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쳐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어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다.





« 여성의 광장

여성의광장 교육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열린다. 인터넷상으로만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대상은 18세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정원의 20%범위 내에서 남성 교육생도 뽑는다. 문의 ☎ 815-7101

→ 쇼핑물 플래너

국제정보능력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온라인 쇼핑물을 열수 있는 과정. 교육기간은 3개월, 월 수강료는 월 2만원. 교재비는 별도다. 분기마다 20명을 선발한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매년 10월에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1년 동안 시행한다. 이곳 공인중개사 과정은 강사진이 우수해 자격증 취득율이 높아 경쟁률도 상당하다. 수강료는 월 2만원. 교재비는 별도.

→ 한식조리 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대비반. 3개월 과정으로 분기당 24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월 2만원이지만 재료비는 월 6만원이다.

→ 신나는 상차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출장요리, 창업 등을 도와주는 과정이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품요리, 찌개, 밑반찬 만드는 것을 교육한다. 분기당 24명을 모집하고 수강료 월 2만원, 재료비 월 6만원이다.

« 인천사이버시티센터

시민들의 원활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돕는 인천사이버시티센터. 올해는 노령층을 위한 맞춤과정인 '컴퓨터 걸음마반'과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쇼핑물, 오픈마켓 과정, ITQ 자격증,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과정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사이버시티센터 강좌는 사이버교육이 아닌 현장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문의 ☎ 440-8122, cybercenter.incheon.go.kr

→ 쇼핑물 창업

홈페이지를 만들어 물건을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교육과정은 1회당 2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4주과정이다. 강의료는 무료이나 교재는 따로 사야 한다.

→ 미니홈피 활용+UCC동영상

60세 이상의 인천시민만 신청이 가능하다. 미니홈피 사진올리기, 꾸미기 방법과 동영상찍은 후 편집하기, 글씨쓰기, 애니메이션 활용하기 등을 배운다. 2주과정.

→ ITQ 자격증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기술자격증에 대비하는 강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공부한 후 I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이 실시된다.

사이버세상에선 교육비가 '공짜'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 운영하는 시민교육 사이트 (www.cyber.incheon.kr).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들을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에서부터 컴퓨터 자격증 강의부터 워드 1, 2, 3, 공인중개사, 한자자격증 강좌 등 180개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모두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꾸준함은 필수. 수강신청은 우선 인천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학습기간은 최대 2개월이지만 학습후 5개월간 복습이 가능하다. 70%이상 진도가 나가야 자동으로 수료처리 된다. 인기강좌인 외국어와 공인중개사 과정은 1인당 3개과정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수강신청은 매월 1~10일 까지도.

→ 외국어 과정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자신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회화외에도 다양한 문법, 어휘, 작문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영어는 회화, 청취, 토익, 문법 등의 13개 강좌, 중국어는 중국어 입문, 중국어회화, HSK초중급 등 6개 강좌, 일본어는 일본어 입문, 회화 등의 6개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수준별 맞춤학습이 가능하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싶은 시민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면 좋을 듯 싶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은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등 12개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활용을 못하면 취직이 안되는 세상.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워드프로세서1, 2, 3급과정,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검색사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강좌다.

« 지자체 온라인무료학습센터

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온라인무료학습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중구 www.icjg.go.kr

남동구 www.namdong.go.kr

부평구 www.icbp.go.kr

남구 www.namgu.incheon.kr

강 화 www.ganghwa.incheon.kr

옹 진 www.ongjin.go.kr

동구 www.icdonggu.go.kr

연수구 www.yeonsu.go.kr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학, IT, 교양, 자격증·취업 분야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수강신청은 회원가입만 하면 원하는 강좌를 아무 때나 제한없이 들을 수 있다. 일본어, 토익, 북아트,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이 인기있는 강좌다. www.ilec.go.kr, 문의 : 899-1588

The Globalization of Incheon

고인돌과 151층 빌딩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도시

초현대식 시설의 공항을 거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천대교를 가로질러 송도국제도시의 하늘을 향해 솟아 오르는 마천루들을 보았을 때, 신세계와 같은 인천이 5천년 고인돌이 지켜 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도시라는 것을 외국인인 나로서는 실감할 수 없었다.

글 스티븐 워커 교수(노스웨스트 컬리지)



14년 전 한국에 복무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을 때에도 인천의 존재는 서울의 그림자에 가려진 위성도시의 수준이었다.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 상하이로 방문했을 때, 푸둥지역을 보고 천지가 개벽했다고 경탄하였는데, 그야말로 10여 년만에 다시 돌아와 본 인천은 천지가 개벽했다는 표현이 실감났다.

이미 국제도시의 선두에 있는 뉴욕의 역사가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고,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세계경제의 중심의 역할을 하지만 역사적 깊이나 고대의 유물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사시대부터 지나간 시간 뚜렷한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는 인천은, BC 2100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하이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문명의 출범을 예고했던 고인돌이 있는 곳, 건국을 준비했던 마니산 단군의 성지가 있는 곳, 그리고 백제의 도시 미추홀이었던 곳, 국제도시의 출범을 미리 예견한 듯한 중국, 일본과의 해상교역의

중심지, 정신과 사상의 생성지로서의 선교의 현장들, 그리고 한국 전쟁 전세 역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의 현장, 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인천항과 국제교류의 혈관인 인천공항, 세계의 선두를 달리는 국제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도의 신도시 건설현장들을 둘러보았을 때, 이 많은 역사적 숨결들을 한숨에 짚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단군이 나라를 위한 제사를 지냈을 때 그의 염원 속에 지금 아시아의 리더도시, 세계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인천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인천역시 수세대 후의 거대한 발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과 획을 긋는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적 도시가 되어있을 미래의 모습을 쉽게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인천의 사가(saga)는 한국 역사의 서막을 올리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화도의 고인돌은 문명의 새벽이 인천에서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고인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 나는 인천이 5천년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작년 여름 가장 무더운 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방문했던 강화의 고인돌은 미국인으로서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문명의 긴세월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다. 그날은 마침내 카메라가 고장이나서 사진을 찍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친절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인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타도시에서도 인천의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러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화의 마니산은 인천이 역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 높지않은 마니산의 정상에 위치한 참성단은 땅에서 하늘을 향한 가장 가까운 곳이라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곳



으로 정했으리라. 이곳에서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위한 기원 의식을 올린 덕분인지 인천시는 결국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단군 이후 BC1세기 백제의 비류가 인천을 미추홀이라는 명칭으로 중심도읍지로 정한 것이 아마 인천이 중요한 도시가 된 계기였으리라 본다. 인천의 국제도시로서의 중심역할은 백제의 중심지로서 해상을 통해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역을 하던 때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역할은 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활발히 진전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시대 후기부터 다시 활발해진 타국과의 해상교역은 인천을 다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부상시켰다. 인천이 중국과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인천에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인천만이 외국인묘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897년에 만들어진 한국최초의 근대공원인 만국공원(이는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9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은 인천이 근대화와 자주성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 19세기 개항이후 인천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19세기 이후 대한민국에는 서구식 교회와 교육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출발지가 인천이었던 것은 개항 이후 외국문물이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1891년에 아펜젤러가 한국의 첫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인천의 내리교회이고, 그것은 근대교육의 전신인 영화학당의 건립을 이루게 되었다. 19세기말, 즉 100년 전에 제물포에 지금의 답동성당이 건립된 것은 이곳이 서울의 관문이고 외국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본 당시 조선교구장 블랑(1884-90년 파리외방전교회) 주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국제적 안목으로도 인천은 역시 대한민국의 중

단군이 나라를 위한 제사를 지냈을 때 그의 염원 속에 지금 아시아의 리더도시, 세계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인천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인천역시 수세대 후의 거대한 발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과 획을 긋는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적 도시가 되어있을 미래의 모습을 쉽게 점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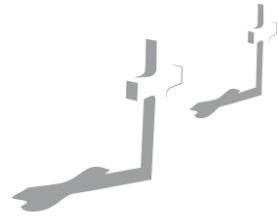
요한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로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사상과 정신의 주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 역력하다.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산업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인천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중심지였다. 성냥공장을 비롯해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공장인 GM대우에 이르기까지 인천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의 연결은 인천을 서울의 국제적 역할을 분담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바야흐로 산업중심지로서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함께 국제도시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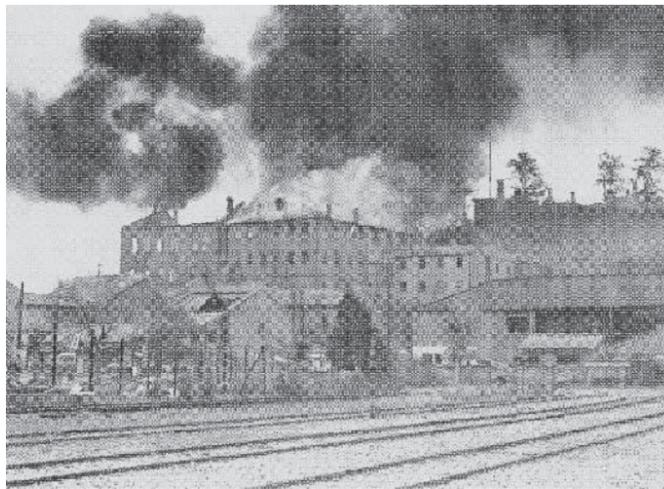
인천은 세계의 다른 국제도시들 중에서도 오랜 역사의 굵직한 흔적들을 간직한 도시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신년사에서 인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었다. 인천을 'U-City,' 'Compact Smart City'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테크닉과 과학적 기술이 발달된 도시이면서 환경이 겸비된 Smart한 이상적 도시를 형성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다면, 유구한 역사와 유물을 간직한 국제도시 인천의 면모도 돋보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인천의 역사적인 것이 더 잘 보존되고 더 잘 알려지기를 바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나는 정말 좋아한다.

뉴욕, 런던, 시드니, 토론토, 싱가포르 등 세계 어느 국제도시를 가도 스타벅스가 준비한 차별성 없는 똑같은 느낌을 받는 고층건물의 국제도시보다는, 한국적 국제도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국제도시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것을 잘 보존해야 새것이 돋보이듯이 151층 건물만큼 아니 그 이상 고인돌의 가치는 값진 것이다. 선사 이전부터 초현대식 국제도시로의 기반시설을 갖춘, 고인돌에서부터 151층건물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도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천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6·25 전쟁 속에 꽃 핀 인천 문화예술



오늘날의 예총(藝總·전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전신은 1949년에 출범한 인천예술인협회였다. 이들은 민족진영계의 문화예술인들로 그 해 2월 서울에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文總)가 결성된 데 대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출범했다. 이듬해인 1950년 6월 12일, 그 회원 대부분은 문총(文總) 인천지부를 창립하는 데 동참했다. **글** 조우성 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 화염에 싸여있는 인천역 일대

시인 조지훈, 인천문총구국대 결성 중용

인천예술인협회원들은 광복을 맞은 지 5년여 동안 비로소 우리말로 시를 쓰고, 거리낌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내 나라, 내 거리의 정서를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쁨 벅차했다.

그리하여 일제에 의해 심히 왜곡, 굴절되었던 민족정기를 문화예술로써 바로잡자는 일념뿐이었다. 창립 열흘 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할 지는 꿈에도 그들 중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문화예술을 일으켜 세워 오순도순 살기 좋은 내 나라, 내 국토를 건설해 보자는 용지는 꾀 보지도 못한 채, 절체절명의 위난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에 전전긍긍하였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군과 연합군이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을 탈환하자 그

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속속 모여 들었고 이어 '인천문총구국대'란 이름으로 결집해 전쟁 중 문화예술 활동을 맹렬히 펼쳐나갔다. 당시 인천문총구국대의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장 표양문, 부대장 우문국(미술), 신태범(문학), 총무 조병화(문학), 선전국장 이인석(문학), 차장 유희강(서예), 집행위원 이경성(미술), 이민(연극), 최성진(음악), 김학수, 김영건, 김찬희(미술), 조수일, 김차영, 한상억, 임진수, 최성연, 김양수(문학), 박세립, 장인식(서예), 최영섭, 이인영, 오재섭(음악), 김인수, 경세호(사진), 김철세, 조동국(영화), 이승하(연극), 김응태, 이정훈, 김은하(언론), 윤기영, 박윤섭 등이었다.

후에 문총 부위원장을 지낸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인천문총약사(仁川文總略史)'에서 인천문총의 창립 과정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인천문총 결성의 기운은 민족진영의 문화인들이 집결하여(중략) 당시 우왕좌왕하는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하나의 진로를 제시하며 민족문화를 향상시켜 보려는 투쟁의식에서 양성(釀成)되었던 것이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시인 조지훈이 이경성에게 인천문총구국대 결성을 중용하였고, 그에 의해 1차 준비 회합을 서예가 박세립 가에서, 2차 회합을 시인 조병화 가에서 가진 후 구국대 강령, 규약, 간부 구성이 완료하였다고 전한다. 문총구국대 인천지대는 문총회관을 인천신보(경기매일신문의 전신) 2층으로 정하고 '우리 문화인도 전열(戰列)에'라는 슬로건 아래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이경성은 그 창립 당시의 상황을 "인천문총의 진실한 역사는 이 공포와 전율과 전란 속에 낙엽 같은 문화인들이 모여 들어 고독과 불안을 면하고 오직 생을 유지하려는 이 시간 속에 태동되었다고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총구국대 인천지대가 벌인 첫 활동은 1950년 10월 30일 동방극장(東邦劇場)에서 연 '멸공 문화인 쫓기대회'였다. 오늘날 '멸공(滅共)'이란 단어

는 분단극복의 걸림돌로 여기지만 당시로서는 가식 없는 국민적 의식의 표현이었고, 문화예술인들은 그를 반영한 작품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설가 김동리의 강연과 시인 조지훈, 장만영, 조병화, 이인석 등의 시 낭송이 있었다. 시인 조병화는 '단 하나의 태양 아래 모여 살자'라는 시를 낭독했는데, 전시 문학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아, 기억하기에도 몹서리치는/살기찬 공포와 불안과/그러한 전율에 휩쓸려/우리 모다 믿지 못할 생명들을/지니고/일그러진 절망 기슭을 방황하며/단 하나 기적 있기를 바라다/쓰러진/수없는 사람들 속에/또 하나 불안한 기적을 애원하던/겨레들이//그날/진정 기적이 돌아오던/그날/1950년 9월 15일/허무러진 굴밖으로/거리로/바리케이트를 차버리고/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들을/다시 높혀서/눈물겨워 오고가던 것은/진정 폭풍우가 사라지는/끝에/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우리 깃발 아래서/가 아니드냐/태극기와 더불어/자비한 유엔 깃발 그 깃폭 아래서/가 아니드냐(후략)"

1952년 10월 인천문총회보 창간

그 후 문총구국대 인천지대 대원들은 반공의식 고취 강연회와 문예 작품 신문 게재, 종군 활동, 반공 표어 가두 전시, 시화전 등을 개최했다. 이들은 1952년 10월 20일 '인천문총회보' 창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쟁지 A4 8면 분량의 회보에는 창간사, 총회 보고, 최성진의 음악 인천의 회고와 전망, 최성연의 '모색하는 한국 영화', '문화유산의 수호', 산하 단체의 임원 명단 등이 실려 당시의 정황을 엿보게 한다. 특히 김양수의 시 '아! 백마산 고지'는 당시 처절했던 전쟁상을 형상화해 눈길을 모은다.

"일찍이 없던/하늘이 여기 새로히 뒤덮히고//하늘을 삼킬 듯/드레레는 파바다가 용솟음을 친다//연막(煙幕) 속에 툭날처럼 걸리는/외마딴 소리들은/폭풍인 양 적진(敵陣)을 휩쓸어//눈이 빠지게 윈수를 노려/내닫는 용사의 가슴은/감내치 못해 부풀어 오른 미움/울화되어 터진다//산이 무너지느냐/바다가 메워지느냐/튀는 돌뿌리 억수로 쏟아지는/불비 속에/산을 쌓는 건 시체의 무테기//길은 오직 하나뿐이다//아아, 태극기가 숨막히게 휘날리는/백마산 고지/포문이 휘어지게 달

은 등성이에선/붉은 피가 쇠물처럼 녹아흐른다" 한편 음악인들은 해군 인천경비부 정훈실, 인천신보사, 대한신문사(전시판) 후원으로 '전시 합창의 밤'이란 부제가 붙은 9·15수복 기념 대음악발표연주회를 1951년 9월 22일 인천영화극장(仁川映畫劇場)에서 연다. 이날 레퍼토리는 최영섭 지휘의 합창 '우리는 국제연합이다(UN 제정)를 필두로, 김병일의 피아노 독주 '항아리 광시곡 6번', 테너 백석두의 '라파로마', 장보원의 피아노 독주 '군대 포로네스', 합창단의 '병사의 합창', 박상만의 바이올린 독주 '추억', 합창단의 '해군인천경비부기', 개신 대합창' 등을 연주해 국군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진예술인들은 1951년 11월 24일 문총회관에서 '제1회 문총 예술제전의 일환으로 '전시사진전(戰時寫眞展)'을 연다. 최성연의 '냉전(冷戰)', '잔해(殘骸)', 김철세의 '싸우는 농촌', '풍년의 개가(凱歌)', 김득주의 '탱크', 김명철의 '넘너마세요, 받드는 사람들', 김인수의 '관중없는 벤취', 김영복의 '농역군(農役軍)' 등도 전시의 참담한 현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었다.

전쟁중 애환 같이한 문화예술

미술계의 활동은 휴전협정 조인 직전인 1953년 7월 4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연 '제3회 미술전을 자료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화부(洋畵部)에는 김학수의 풍경 시리즈, 김영건의 귀향가족, 월미도 풍경, 바다, 초가, 한홍길의 창영동고개, 전재(戰災) 부락, 유희강의 뜰, 꽃, 자매 등이 출품됐고, 서예부에는 최정 허리복의 경천애인(행서), 종군행(從軍行)(초서), 백두산석(石)(예서), 김여 유희강의 5월의 향기(한글 행서), 관동별곡(행서), 동정 박세립의 반야심경(해서), 녹음시(행서), 우초 장인식의 고시조(한글 행서), 오우가(한글 초서) 등이 선을 보였다. 이렇듯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은 전시 중에도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문학, 음악, 미술, 사진예술로서 표출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고 망연자실해 하던 시민들과 문화와 예술로써 애환을 같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60년을 맞은 오늘, 자료의 망실 등으로 아직 인천의 전시예술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전쟁 중 발간된 인천문총회보 창간호. 김양수의 시 '백마산 고지'가 실려 있다.



'대음악발표연주회' 팸플릿. '전시 합창의 밤'이란 부제가 달려 있다.



'전시사진전' 팸플릿. 1951년 11월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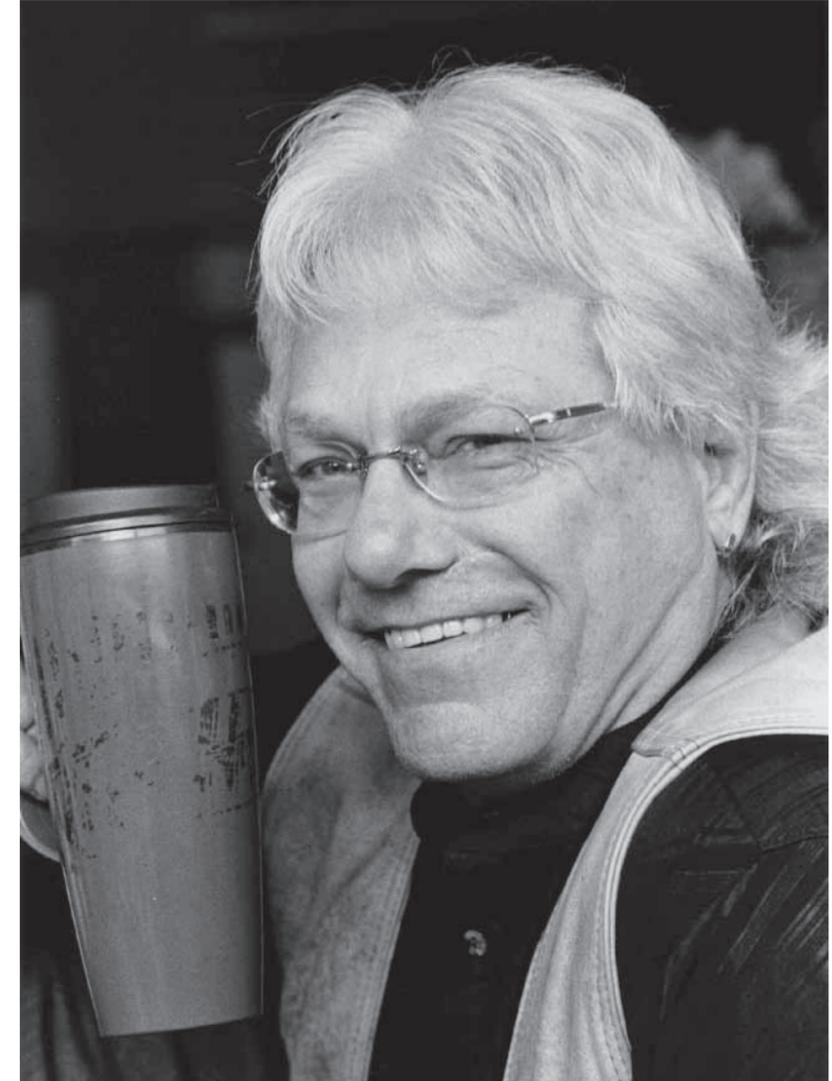
제3회 미술전. 1953년 7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에드워드 권’이 인정한 신세대 셰프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이지민

수줍은 얼굴에 아직 소녀티가 물씬 풍겼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랑또랑하게 말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했다. 케이블·위성 채널 QTV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예스 셰프(Yes! Chef)’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이지민(20·한국외식조리전문학교 2학년), 최연소 참가자로 1천여 명의 도전자를 물리치고 상금 3천만원을 차지했다. 졸업뒤엔 두바이 7성급 호텔 수석총괄주방장을 지낸 에드워드 권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다. 요리솜씨가 좋은 부모님 탓에 요리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그녀는 인명여고 2학년 때부터 취미로 조리학원을 다녔다. 일반대학 대신 한국외식조리전문학교를 선택한 그녀는 그 후, 각종 요리대회를 휩쓸었다. ‘예스 셰프(Yes! Chef)’에서도 톱톡 튀는 창의적인 요리로 극찬을 받은 그녀의 꿈은 요리를 가르치는 교수다.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외국인이 감동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천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요리대회 기간내내 조리실에서 새우잡을 청할 정도로 요리연구에 폭 빠진 그녀의 소망은 애호박, 버섯, 마와 같은 한국적인 재료로 세계인이 먹을 수 있는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이웃을 섬기는 행복

봉사하는 외국인, 더글러스 듀워드

지구 건너편 캐나다, 동양의 신비한 매력에 사로잡힌 이가 있었다.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오천년 역사를 품은 한국으로 이어졌고, 결국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국에 뿌리내리게 했다. 그는 바로 더글러스 듀워드(Douglas Durward) 씨다. 2002년 한국 땅, 그것도 인천 문학동에 발을 디딘 그는 영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현재 OK목장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 삶을 꾸리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을 터인데, 그는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더글러스 씨는 오래전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아이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문학동에서는 ‘선행을 베푸는 외국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수많은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다며 인터뷰도 고사했던 그다. “외국인이라서 하는 일이 두드러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나눔은 큰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누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그는 참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설 준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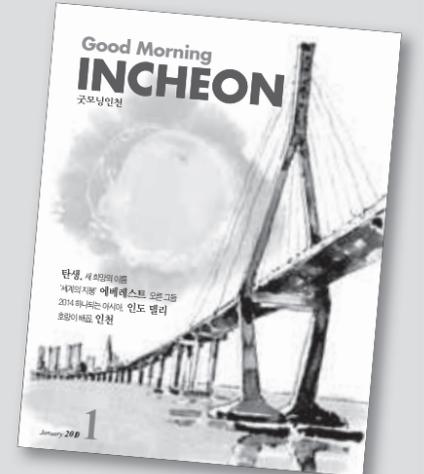
설 준비에 분주해질 때다. 가족이 모인다는 기대감에 설레이지만 설 차례상을 차리려니 물가상승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여느 해 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이럴때 싸고 인심 좋은 가까운 재래시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설 준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에서 하는게 30% 이상 더 저렴하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천장 설치는 물론이고,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갈수록 늘어나 장을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엔 지방 특산물이나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재래시장에서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치고 고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품권이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구입하기에도 편리하고, 사용범위가 넓어서 알뜰한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기가 높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신포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35개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인천지하도상가, 부평역지하도상가 등 16개의 지하도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1만원권과 5천원권 2종류로, 인천시내 113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재래시장 상품권은 법인신용카드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나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설 선물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시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상인연합회와 함께 전자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편리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G

구매문의 인천상인연합회 ☎ 873-4900, 농협 시청지점 ☎ 426-2700

손끝으로 보는 인천



“세상에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이 많지마는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도리어 손으로 만져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틀림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의 말이다. 인천이 고향인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마음을 한글점자 창안으로 드러냈다. 박두성 선생이 만든 한글점자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전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시는 자칫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판 굿모닝인천’을 발행한다.

현재 우리시 시각장애인 수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1만2천600명, 이중 1급 시각장애인 수는 1천709명으로 추산된다. 굿모닝인천 점자판은 ‘공공기관 등은 제작·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매월 1천부가 발행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굿모닝인천 점자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관련 복지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단체, 시립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굿모닝인천 점자판에는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 문화재 탐방 및 안내, 유관기관 알림 소식, 인천의 문화공연 소식 및 일정, 기타 읽을거리 등 시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등을 수록했다.

한편 우리시는 이번 점자판 발행 후, 구독자 반응에 따라 내년에는 발행부수를 늘리고,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화자본을 발행하는 등 점자판 발행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

역사 속 월미도 파노라마

월미산 전망대에 올라서면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에 인천대교의 웅장한 자태가 그 속살을 드러내고, 수많은 상선과 유람선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때 개항이라는 이름으로 열강의 군함이 활보했던 이 평화로운 섬은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섬 아닌 섬 월미도는 유사이래 인천과 운명을 함께 했고 앞으로의 화려한 부활은 곧 인천의 미래라 할 수 있다.

글 강덕우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달꼬리’처럼 생기지도 않았지만 월미(月尾)라는 이름자로 인해 그렇게 불려왔던 섬 월미도는 ‘어울미도(얼미도→월미도)’에서 유래한다. 인천 앞 바다의 물이 휘감아 도는 형상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명칭은 숙종 34년(1708)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고 있고, 19세기 후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와서야 비로소 월미도란 지명과 월미행궁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 월미도가 한국의 역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병자호란의 아픔을 겪은 뒤였다. 청(淸)에 대한 북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효종 7년(1656), 월미도에 국왕의 임시 거처인 행궁(行宮)을 설치하였는데 호란 당시 서울~김포~갯곶진~강화도로의 도피로가 적에게 노출됨에 따라 강화도에 입도하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

기 위해, 유사시 인천에서 월미도~영종도를 경유하여 초지진을 거쳐 강화도로 피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월미도는 중대한 국제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된다. 그 첫 번째가 1866년의 병인양요로 프랑스 함대사령관이던 로즈(Pierre G, Roze)제독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월미도를 로즈도(Rose Island)로 명명하고 해도(海圖)에 기록했다. 아마 1871년 신미양요때에도 미국함대는 로즈도를 목표로 침입했을 것이다. 일시나마 월미도는 우리도 모르게 서양이름을 갖는 이 변을 겪었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는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월미도에 숨었다가 간신히 영국선박 플라잉 피시호를 타고 일본으로 도피한 일도 있었다.



그림 화가김재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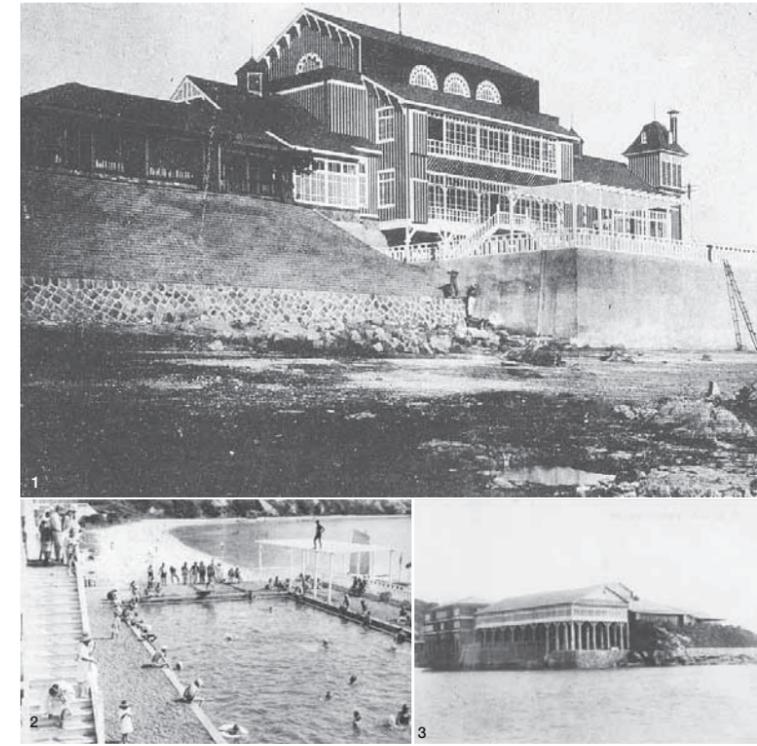
1883년 개항지로서 인천 제물포가 선택된 데에는 다른 아닌 월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월미도 정박지가 영종, 대부 등 여러 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풍랑이 있더라도 큰 파도가 칠 걱정이 없고, 대형 선박이 항상 정박할 수 있으며, 제물포와 월미도 사이에는 썰물 때도 한줄기 수로가 형성돼 있어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등을 실어 나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제물포와 월미도는 순치의 관계였던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자 청일전쟁(淸日戰爭)을 승리로 끝낸 일본은 한국을 장악하고 러시아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준비로 분주했다. 1891년 월미도에 이미 해군용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를 설치한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4년 월미도를 군용지로 삼아 민가 및 묘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인천역과 월미도 사이에 철도를 부설하여 소월미도에 양륙한 군용화물을 수송하였다. 이리하여 월미도는 병참기지가 되었고 러시아 함대를 기습 격침한 제물포해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완전히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월미도의 또다른 변신은 1918년부터 시작되었다. 풍치지구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월미도 중턱에 순환도로를 뚫고 뱃나무, 아카시아 등을 심어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였다. 또한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월미도는 봄이면 전국에서 상춘객이 몰려들었고 철도국에서는 경인철도에 화열차(花列車)를 운행하기도 했으며 여름이면 해수욕장과 조탕(潮蕩)을 찾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월미도가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닷물을 데워 목욕물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조탕을 개발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월미도는 해변가에 대형 풀이 증설되고, 밀물 때 마치 바다에 등등 떠 있는 것처럼 설계한 용궁각(龍宮閣)이라는 일본식 요정도 생겨났다. 1935년 무렵에는 3층 목조 건물인 빈(濱)호텔이 건립되어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들었다. 월미도는 ‘돈’과 ‘미녀’를 갖추고 즐기는 유원지로 조선인의 머리 속에 각인되었고, 신문들은 경인도시의 ‘오아시스’, ‘해상낙원의 극치’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유원지 조성은 조선인들이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을 희석시키려 했던 간계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광복 후 월미도의 위락시설은 적산(敵産)으로 미군정에 접수되었고, 1948년부터 지역 유지들이 ‘월미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월미도 조탕(潮蕩)을 재개장하여 운영했지만 인천상륙작전 중에 소실되고 말았다. 1950년 9월 10일 미 해병대 항



1 월미도조탕 2 월미풀장 3 용궁각

공기는 네이팜탄으로 월미도를 폭격한 이래 65회에 걸쳐 인천지역을 폭격하였다. 월미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초토화되어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1974년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초현대식 갑문을 설치하여 인천내항 전체를 선거화(船渠化)한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완전히 육지와 연결되었다. 반세기 동안 월미산은 군사기지로 엄격한 통제·제한구역이 되었으나, 1987년 7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이래 문화예술 공연과 월미축제 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2001년 관광특구 지정과 맞물려 친수공간 확장과 월미산 개방이 이루어졌고, 한국이민사박물관이 들어서서 지역의 역사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또 전통공원을 조성하여 컴퓨터 제공하고 있으며 거기에 하늘을 달리는 월미은하레일이 곧 개통될 예정이다. 근현대사의 슬한 사건을 묵묵히 지켜본 이 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좀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월미 팔미섬을 감돌아 오대양으로 뻗어나갈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자연경관, 문화유적 연계한 강화나들길 개설

올해부터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는 '녹색관광상품'이 적극 개발된다. 시는 2013년까지 강화군에 제주 올레길과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나들길'을 개설할 예정이다. 도보관광객을 위한 탐방로인 나들길 주변에는 이정표, 정보센터, 야영장, 편의시설을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접경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생태공원, 가스과학관, 드림파크 등을 잇는 '친환경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문의: 관광진흥과 ☎ 440-4040



월미관광모노레일 3월 개통

국내최초의 도심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은하레일'이 오는 3월 26일 개통될 계획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교통공사가 830억원을 투자해 경인전철 인천역을 출발, 월미도를 순환하는 4.968km노선에 건설했다. 모노레일 궤도는 노면에 5~17m높이의 지주를 세우고 설치했으며, 무인 자동운전차량 1편성(2량)당 70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15~20km로 운행하게 된다. 정류장은 인천역 앞 광장을 포함해 월미공원 입구, 선광공사 앞, 이민사박물관 앞 등 4곳에 설치돼 월미관광특구 곳곳을 연결했다. 운영은 전문업체에서 맡게되며 요금은 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송도컨벤시아서비스 좋아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대한 만족도가 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한해 동안 송도컨벤시아를 이용한 전시기획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가 송도컨벤시아 측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송도컨벤시아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했던 컨벤션업체 및 기획사 및 관계자 32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조사결과, 서비스에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4%와 3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9%에 불과했다. 문의: 인천관광공사 ☎ 220-5007



송도에 뉴욕 무선정보센터 한국분원

무선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New York State 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이하 'CEWIT') 분원이 송도에 설립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CEWIT와 송도 국제도시에 한국 분원인 '씨윅 코리아(CEWIT Korea)'를 세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으로 뉴욕주 무선 정보센터측과 한국 분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072



주안역에 무인도서관시스템 '책나루' 구축

보고 싶은 책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출퇴근길에 전철역에서 예약한 책을 손쉽게 찾아가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천수봉도서관은 예약대출은 물론 반납까지 가능한 무인도서관 시스템 '책나루'를 구축하고, 1월 중순부터 주안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역 '책나루'서비스는 바쁜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서관 운영 시간과 상관없이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을 통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로, 우리시는 물론, 전국 코레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최초다. 문의:수봉도서관 ☎ 870-9100



마니산 참성단 3월 1일까지 한시 개방

새해를 맞아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마니산 정상에 위치한 참성단(사적 136호)이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마니산은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일부 등산객의 참성단 훼손으로 원형유지가 어려워 출입을 통제하고, 관광객들을 위해 등산로 일부를 조정해 인근 산봉우리에서 관람하도록 해왔다. 마니산 참성단은 해맞이 관광객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10월 3일 개천행사, 그리고 전국체전의 성화 채화 등 특별한 행사 때만 개방해왔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개방과 관련해 안전사고 대비와 참성단과 참성단 내 소사나무(천연기념물 502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문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 930-7000



송도갯벌 6.11km 습지보호구역 지정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갯벌 6.11km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송도갯벌은 송도매립지 6, 8공구 2.50km와 11공구 3.61km 구간으로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조성을 위한 갯벌매립대상에서 제외시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송도갯벌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구간이다. 이곳은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에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다. 문의: 해양수산과 ☎ 440-4891



인천 전국체전 2013년에 개최

2012년 개최 예정이던 인천 전국체전이 1년 연기된 2013년에 열린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우리시와 인천시체육회에서 요청한 전국체전 1년 연기안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으로 우리시는 당초 2012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2013년 대구시와 맞바꾸어 치르게 됐다. 또 이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2014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은 2010년 경남도에 이어 2011년 경기도, 2012년 대구시, 2013년 인천시, 2014년 제주도에 각각 열리게 된다. 문의: 대한체육회 ☎ 02-2144-8144



서부여성회관 4월 문열어

올해 우리시엔 여성회관 1곳과 국·공립 보육시설 6곳이 신설된다. 서구 석남동에는 서부여성회관이 오는 4월 문을 연다.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연면적 7천20㎡)의 서부여성회관은 어린이집, 수영장, 강의실, 공연장, 회의실 등을 갖췄다. 어린이집은 서구청이 운영을 맡게 된다. 서부여성회관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전문직업교육과 창업지원사업을 벌인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에서는 회원을 모집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여성·아동·상담사업을 하고 지역문화교류 행사를 연다.

문의: 여성정책과 ☎ 440-8287



2호선 친환경,경제교통시스템으로 운영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호선은 2008년 9월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발전 30개 선도프로젝트 중 수도권 3대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14년 9월 아시아경기대회 전 교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설된다. 차량시스템은 저소음·저진동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신교통시스템으로 완성 무인자동운전방식의 철제차륜 경전철로 2량 1편성 기준으로 운행되며, 수송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문의: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36



송도국제도시 '다리야경' 새 명소

송도국제도시 내 다리들이 연인들의 데이트코스과 전국 사진동아리들의 야간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다리중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인천대교를 비롯 송도와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송도 1, 2, 3교와 센트럴파크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등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연수지구를 연결하는 송도1교는 교량 중앙에 '세계로 열린 자유도시 송도'를 상징하는 원형주탑(3.75m)이 있어 기하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중구 푸드마켓 4호점 오픈

중구에 푸드마켓 4호점이 문을 열었다. 계양구, 동구, 강화 등 3개소엔 푸드마켓이 2009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선정된 중구 푸드마켓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0일 인천 4호점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이 공급자 위주의 배분방식이라면 푸드마켓은 저소득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좀더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이다.

문의: 사회복지봉사과 440-2916



인천연고 벽산건설 핸드볼큰잔치 우승

인천이 연고지인 벽산건설 핸드볼팀이 '2010SK 핸드볼큰잔치' 여자부 결승전에서 2연패를 거머쥘었다. 지난 1월20일 결승전에서 라이벌인 삼척시청을 28-13으로 대파하며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문필희(레프트백), 류은희(라이트백), 김은아(센터백) 등 국가대표 선·후배와 함께 한 벽산건설팀은 초반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전반 휘슬이 울리자마자 두 골을 터뜨려 상대의 기를 죽였고, 이후엔 동료에게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배달하며 코트를 누볐다. 전반은 벽산건설의 13-8, 5점 차 리드.

이날 경기의 수훈감은 김은아 선수. 벽산건설이 후반 초반 터트린 8골중 5골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김은아는 2년전 한국 여자핸드볼의 세대교체를 리드할 희망으로 꼽혔었다.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로 최종엔트리에 합류하며 오성욱의 백업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표팀 주전으로 뛰며 일취월장했다.

벽산건설 임영철 감독은 "수비가 잘 됐고, 골키퍼 선방에 이은 오픈공격, 미들속공이 살아나면서 전반 중반부터 승기를 잡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장기 레이스로 펼쳐진 지난해 슈퍼리그 결승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올해 8개 국제스포츠대회 열린다

올해도 인천에서는 국제도시 인천을 빛낼 다양한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시는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스포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열리는 국제 대회는 8개다.

우선 3월 28일엔 '제10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코스는 문학월드컵경기장↔연수구 해안도로. 참가규모는 13개국 1만3천여 명. 경기종목은 하프, 10km, 5km다.

4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열린다. 시립가좌테니스장에서 20개국, 100명이 참여한다.

5월엔 용유 왕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인천월드인라인킥2010대회'가 열린다. 15개국에서 선수 7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종목은 38km, 20km, 11km, 주니어경기로 진행된다.

6월 12~13일에는 '2010인천월드리그국제남자배구대회'가 인천삼산월드컵체육관에서 개최되어 한국과 불가리아간의 불꽃튀는 경기를 감상할 수 있고, 7월엔 '2010 인천국제실업핸드볼대회'가 인천삼산월드컵체육관에서 열려 4개국 15개팀 4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핸드볼 경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8월11일~15일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열린다. 8월22일 송도신도시 일원에는 '인천아시아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가 개최돼 20개국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체육진흥과 440-4100



사랑나눔 장학증서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작년 연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장학생 16명을 의회로 초청해 사랑나눔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사랑나눔 장학증서를 전달받은 장학생 16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2007년 12월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당시 중학교 1학년생, 현재 중학교 3학년생) 들로서 고교 졸업후 대학 등록금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기반 확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6백18만7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학금은 의원1인당 의정비에서 매월 5만원씩을 각출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현재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9천9백만원의 목표로 장학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장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된 미래에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인천의 미래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라”고 당부 했다.



태국 방콕시의회 방인

태국 방콕시의회가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나파폰 치라쿨 제2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국방콕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2007년 7월 양도시 의회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한 이후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양도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앞으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양 도시의회는 물론 양 도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시의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방콕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인천시와 방콕시 시간에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방문단은 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박물관 등 인천주요지역을 둘러보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 방콕시의회 나파폰 치라쿨 부의장은 “양 도시 간 교류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말하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인천이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연탄' 후원금 1천만원 연탄은행에 기부

인천광역시의회는 작년 연말 '사랑의 연탄' 후원금 1천만원을 인천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시의회는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열러 절감한 예산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인천지역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됐다. 인천연탄은행은 2007년 설립되어 전국 연탄은행협의회 19호점으로 저소득계층에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암박두성 선생'을 기리는 문화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시의회 유천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송암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선생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더 어려움이 있어왔던 부분이 조례제정으로 앞으로는 문화사업과 유업을 기리기위한 예산 등을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맹인들의 세종대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송암박두성 선생은 장애인 교육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평생을 맹인교육에 전념했으며 점자를 개발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애써오는 등 그간 다양한 업적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화구역 특위, 인천대 관련 보고받아

인천광역시의회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어윤덕 사장으로 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회의를 통해 인천대학교 이전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고, 사업이 늦어지면 도개공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주민의 불만도 커지므로 관련 부서들의 뜻을 모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도화특위는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인천대학교와 인천도시개발공간 지지부진했던 재산이관 문제에 대해 두 기관 간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케 하였으며, 논란이 되었던 재산이관 방식에 있어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지난 1월 15일 개최한 임시회에 부의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건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OBS경인 TV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결과 조건부 원안가결,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도화캠 퍼스 및 송도캠퍼스 재산가격 차이에 따른 과세부문에 대한 설명 및 도화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인천대학교 부지 및 도화구역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불가피성 및 필요성 ▷밀라노시티·트리엔날레관 원가 조사서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는데 미리 준비했다면 이번과 같이 재심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기부채납 금액과 원가조사액 차이 발생 사유 ▷가설건축물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고, 조건부 원안가결 했다. 조건부 원안가결 내용은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 기부채납과 관련 향후 재단법인 구성후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가족방문상담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켜요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족방문상담과 가족치료를 실시합니다.

- 대상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를 희망하는 저소득·위기가족(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알콜중독, 우울증, 정신건강 문제 등)
- 방법
 - 가족방문상담 : 전문상담원이 직접 가족 방문상담
 - 가족치료 : 가족치료사의 심리 & 표현미술치료
- 내용
 - 가족상담 · 치료를 통한 가족내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회복
 - 가족상황에 적합한 가족심리 및 표현미술치료
 - 사진 · 사후 심리검사 등
- 비용 : 무료
- 기간 : 2월~12월
- 문의 : 인천시 여성복지관 가족지원팀 ☎ 434-6436~7

인천터미널 시외버스 인터넷으로 예매하세요

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승차권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시 : 1월 15일부터
- 대상 :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선의 시외버스
- 방법 : 인티스(인천광역시 교통통합웹사이트, www.intis.or.kr)에서 승차권 예매→예매한 카드 지참 인터넷 예매승차권 자동발매기 또는 매표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발권
- 문의 : 인천교통공사 ☎ 430-7261

이제 양 · 한방 동시에 진료받으세요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과-한의과-치과 협진이 가능합니다.

- 대상 의료기관 :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대상이 되지 않음
- 이용 방법 :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양 · 한방 의료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면허 진료과목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 협진병원 확인방법 : 병원 입구에 표시된 진료과목에서 다른 면허 진료과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상근하면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

기존 병원	한방과가 개설된 병원	치과가 개설된 병원
-내과 -신경과	(내과 / 신경과 / 한방내과 / 침구과 등) → 한의사가 상근	(내과 / 신경과 / 치과) → 치과의사가 상근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8

인천시민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인천대학교 인천시민대학에서 2010학년도 1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제물포캠퍼스

- 교육기간 : 3월 15일~6월 26일
- 교육장소 : 인천 남구 도화동 177번지 학산도서관
- 접수기간 : 2월 8일~3월 5일
- 모집과정
 - 평생교육과정 : 7개 분야 83개 과정, 1천662명
 - 학위취득과정 : 8개 전공 128개 과목, 4천50명
- 학 습 비 : 전 과정 유료
- 문 의 : 인천시민대학 ☎ 441-5394, 5

강화캠퍼스

- 교육기간 : 3월 8일~6월 19일
- 교육장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5-15 청담빌딩 3층
- 접수기간 : 2월 8일~3월 5일
- 모집과정 : 평생교육과정 : 6개 분야 25개 과정, 500명
- 학 습 비 : 인천시민 무료, 타 시 · 도민 유료
- 문 의 : 인천시민대학 ☎ 932-1391, 2, www.cecu.com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하세요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 높이 go! 사고 낮추go!'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여,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을 공모합니다.

- 모집분야 : 표어 · 포스터(어린이, 청소년, 일반) · 동영상
- 응모주제 : 교통과 관련되고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한 주제
-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 contest.rota.or.kr
- 총상금 : 2천95만원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왕십리길 160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공모전 담당자앞 (우)100-789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 830-6162

국어문화학교에서 한글 맞춤법 배우세요

인터넷 용어에 더 익숙해서 세종대왕님께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헛갈리기쉬운 맞춤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한글 맞춤법 기초강의를 실시합니다.

- 국어문화학교 : 너 어의없다?
- 일시 : 2월 4일(14:00 ~ 16:0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3층)
- 강사 : 국립국어원 국어전문 강사
- 수강료 : 무료
- 수강대상 : 성인
- 수강인원 : 30명
- 접수방법 : 미추홀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접수
- 홈페이지 : 미추홀행사) 교육문화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 문의 : 미추홀도서관 ☎ 440-6625, www.michuhollib.go.kr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뜻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대상	내용	활동일시	접수일시	참가비	
꿈을 키우는 인형극장, 일러딘	성인, 아동, 청소년	인형극 공연	2월 27일(토)	2월 26일(금)까지 방문접수	무료	
겨울학기 교육 아카데미	유아발레	5세-7세	매주 화, 목 18:00-16:50	2월	상시모집	3만원
	아동미술교실 A반	5세-6세	매주 수, 금 15:00-15:50			2만4천원
	아동미술교실 B반	6-7세	매주 수, 금 18:00-16:50			2만4천원
	아동가베	5-7세	매주 화 18:00-16:50			2만원
초등주산교실	1-4학년	매주 수 18:00-16:50			2만원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www.dreamyouth.kr

인천시립박물관 시민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알립니다

인천시립박물관 2010년 시민강좌의 주제는 '한국사 미스터리, X파일'입니다. 그 두 번째 미스터리는 '설화 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 일시 : 2월 6일(토) 14:00 ~ 17:00(매월 첫째 주 토요일)
- 주제 : 설화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
- 강사 : 최래옥(한양대학교)
-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1층 대강당 석남홀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공개강좌)
- 참가방법 : 별도의 수강신청과정 없음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실습 프로그램 '우리가족 박물관 가는 날'을 엽니다. 2월에는 '한지를 이용한 한지등잔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월 27일(토) 10:00~12:00
-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3층 해님이방
- 대상 : 회당 가족 20팀
- 재료비 : 교육당일 현장 구입(1만원 내외)
- 신청기간 : 2월 23일(화) 09:00~2월 25일(목) 18:00
- 신청방법 :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museum.incheon.go.kr), 박물관교육 → 수강신청 클릭)
-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440-6736



가족과 함께 그림책 여행 떠나요

부평기적의도서관 특별 프로그램 '책을 만난다. 친구 생각 + 내 생각'에 참여하세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세대의 벽을 허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달의 책 : 도토리 삼형제의 안녕하세요-이현주 글, 그림
- 일시 : 2월 25일(목) 오후 6시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 대상 및 인원 : 남녀노소 누구나(선착순 200명)
- 참가비 : 무료
- - 이현주 작가와의 만남 및 대화
 - 가족의 책 낭독회
 - 어린이의 작은 공연
 - <도토리 삼형제> 다종이 인형 전시
 - 책의 그림과 내용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 문의 :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3

작은 음악여행 House Concert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근대 개항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제물포 구락부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알리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자 '작은음악여행! House Concert'를 개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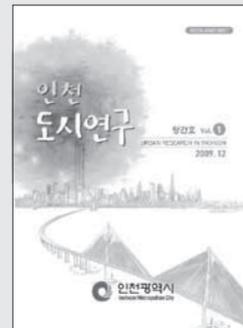
- 일시 : 19:00~20:00
 - 2월 26일(금) : 흰눈 속 알프스의 요들 속으로
 - 4월 9일(금) : 꽃 내음 피어나는 국악과 퓨전의 만남
 - 7월 9일(금) : 한 여름밤과 어우러지는 목소리, 아카펠라
 - 10월 8일(금) : 가을 속 통기타의 추억기차여행
- 장소 : 제물포 구락부(자유공원) 3, 4회는 장소변경 가능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www.mchart.co.kr

인천 버스정보센터 견학 신청하세요

버스정보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버스노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면 인천 버스정보센터로 견학하세요.

- 이용대상 : 내국인 및 외국인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10:00 ~ 17:00)
- 견학시설 : 상황실 및 홍보체험실
- 견학가능인원 : 40명 이하
- 신청방법 : 홈페이지(bus.incheon.go.kr)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인천버스정보관리시스템 ☎ 424-8338, bus.incheon.go.kr

인천도시연구 창간호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인천의 도시정책 및 계획방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 <인천도시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인천도시연구>는 정책연구·연구논문·특집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집필하였고, 시 도시행정팀장이 자문 하였습니다. 정책연구는 '2025년 인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구상 및 세계 주요도시 사례 연구'와 미래의 핵심 도시전략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외 도시 계획 정책 및 제도' 및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활용 방안 연구' 등 1년간 인천의 현안 과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 문의 :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440-4645

해노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올 설, 우리시 브랜드식품 '해노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해노랑은 인천의 건강한 농산물인 속노랑고구마와 인삼을 대한민국 제과명장 1호의 손으로 빚어내어 그 맛이 깊고 부드러운 명품 생과자입니다.

- 구성 및 가격 : 2호(날알 8개) 1만원 / 3호(날알 12개) 1만5천원 / 4호(날알 16개) 2만원 / 6호(날알 36개) 4만5천원 / 8호(날알 72개) 9만원

- 주문안내 : (주)박찬회화과자(578-8905, www.hwakwaja.co.kr)와 전국 롯데백화점 박찬회화과자 매장에서 구입
-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63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합니다

인천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관계 및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대상 : 문제행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아동(초등학생)
- 문제유형 : 정서불안정,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도벽 등
- 치료유형 : 미술치료
- 치료내용
 - 아동문제 및 정서 파악을 위한 초기상담 및 심리검사
 - 심리분석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미술치료
- 치료비용 : 무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 : 인천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 440-6521~3, 434-0182

60-2, 70, 70-1, 82번 버스운행정보 준비 중입니다

-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A/BIS)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 노선(60-2, 70, 70-1, 82번) 버스의 차량단말기 장치 확보 및 무선 통신망검증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행정보 미제공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교통공사 ☎ 424-8358

주한외교사절과 민속체험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주한외교사절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뜻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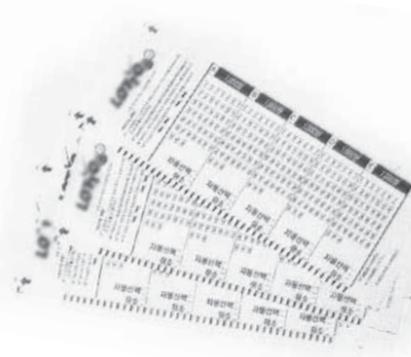
- 참여 주한외교사절 : 40개국 100여 명
- 대상 : 인천시민, 학생(초등·중등·고교) 등
 - 체험놀이 : 연날리기, 줄다리기, 널뛰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달집태우기(소원지 작성) 강강수월래, 가훈공주하기, 포토존(외교사절과 사진찍기), 사진공모전
 - 먹거리 체험 : 군고구마, 떡, 전통차, 부럼
 - 전시 : 한지작품 전시
- 시간 : 오전 9시30분부터
 - ※ 한복을 입은 인천시민에게는 기념선물을 증정합니다.
- 문의 :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 ☎ 433-4455

'손으로 짓는 삶' 강좌에 초대합니다

손으로 행복을 빚어내세요. 기분 좋은 가게에서 '손으로 짓는 삶' 강좌로 초대합니다.

- 기간 : 3월~5월
- - 규방공예
 - 화요일 오전 10:30-12:00, 3개월(12만원, 재료비 별도)
 - 수업내용 : 사각 바늘방석, 핸드폰 고리, 메달 목걸이, 손지갑, 꽃잎 주머니, 모시 컵받침, 연잎보, 모시발 등
 - 생활도예
 - 금요일 오전 10:30-12:00, 3개월(12만원, 재료 제공, 굵기 별도)
 - 자연물공예
 -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30-12:00
 - 3월 17일 : 지끈 모빌만들기(재료비 포함 1만5천원)
 - 4월 21일 : 지끈 등구미와 바구니(재료비포함 1만 7천원)
 - 5월 19일 : 자연물로 물고기 모빌 만들기 (재료비포함 1만3천원)
- - 뜨개질 동아리
- 장 소 : '기분 좋은 가게(문턱 없는 밥집) 2호점'
- 위치 : 계양구청 공영주차장 앞 명동프라자 3층
- 신청 : 선착순 접수
- 문의 : 기분 좋은 가게 ☎ 543-6260

'복권'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



서민들의 기대와 설렘이었던 복권

“씩씩씩” 동전 굽는 소리에 이목이 모인다. “꽝” 흑시, 하는 기대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가슴이 훌쩍히 오그라든다. 10년 전만 해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복권 굽는 풍경이다. 로또가 뿌리내리면서 주택복권이나 즉석복권 등이 하나 둘 사라져간다. 동전으로 굽을 것 없이, 45개의 번호에서 6개의 숫자를 골라 색칠하면 되는 로또. 내 휴대폰에는 로또 번호를 골라주는 ‘랜덤 볼’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있다. 로또는 일확천금을 넘어 ‘일확억금’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당첨금도 거액이다. 그러나 나는 로또의 ‘번쩍이는 행운’을 보며,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기도 하다. 기대와 설렘 속에 복권을 굽는 추억이 그리워진다. 송영석 · 부평구 삼산1동

딸아이 덕에 행복했던 하루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난 딸아이가 “엄마 나 꿈에서 뱃뱃지를 봤어. 몸에 똥이 잔뜩 묻어서 내가 씻겨줄게 했더니, 뱃뱃지가 고마워 꿀꿀했어”라고 말했다. 난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딸아이가 골라준 숫자를 적어 복권을 샀다. 아이도 덩달아 신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와 딸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딸아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면서도 복권에 당첨되면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난 복권을 손에 들고 복권추첨시간만 기다렸다. 그리고 숨죽이면서 브라운관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복권은 모두 ‘꽝’이었다. 허탈해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짓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났다. 비록 복권에 당첨은 안 됐지만, 아이의 순수한 꿈 때문에 행복했던 하루였다. 한선희 · 동구 화수2동

복을 선물하세요

새해를 맞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복은 없을까하고 궁리하던 끝에 복권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날 나는 연하장 20여 장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복권 40장을 구입했다. 그리고 아끼는 분들께 봉투에 곱게 복권을 넣어 내 마음속의 정성, 존경심을 담아서 전해 드렸다. 받는 분들은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이 되면 반드시 당첨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손가락 걸며 약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복권으로 집을 장만하셨다는 분이나 그 혼한 만원짜리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복권을 선물했던 분들의 환한 얼굴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훨훨 나는 듯 했다. ‘올 해부터는 지인들의 생일 선물로 복권을 선물해 볼까?’ 원래 행운이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행운을 전해주는 전령사가 될 수 있다면 그 것만큼 유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한미라 · 남구 주안4동

한여름밤의 꿈

퇴근길, 지친 몸으로 지하철에서 줄면서 집에 가는데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로또 일등에 당첨되었다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나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를 뵈자마자 로또부터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큰 보물을 건네듯 조심스럽게 로또용지를 주셨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할머니는 5개임을 사셨고 모두 30개의 번호에 일등 번호가 여기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결국 전부 꽝인 로또였던 것이다.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졌지만, 곧이어 가족 모두 웃음보가 터졌다. 최애리 · 남구 학익1동

다음달 테마는 ‘내 짝궁’입니다.

‘내 짝궁’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2매). 책에 글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6)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In Loving Memories



눈발 위 토끼 두 마리

언제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올까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 토끼 같은 두 아이가 엄마에게 눈 뭉치 공격을 준비하고 있네요. 어른들은 눈이 많이 와서 괴로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심을 잃지 마세요.
권혜옥 · 부평구 삼산동



백호와 우리부부, 아이까지 우리는 넷~
이제 결혼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신랑입니다. 아내와 함께 인천의 명소 월미도에서 백호 인형을 들고 새 희망을 빌었습니다. 새해에 태어나는 우리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김태홍 · 부평구 삼산동



눈 속에 파묻힌 아이들
강원도 산골처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눈이 펄펄 내렸어요. 아빠는 출근하느라 짐땀을 뺐지만, 아이들은 눈발에 구르고, 눈을 뭉치 던지며 신이 났네요.
정보애 · 연수구 옥련동



우리는 야구가족
인천하면 야구! 야구하면 인천 아십니까? 우리가족 야구단을 소개합니다. 아들은 제법 그럴싸한 폼으로 방망이를 제법 잘 휘두릅니다. 딸은 이제 돌을 맞이하는 데 오빠가 친공을 제법 잘 주어다 줍니다. 행복한 우리집입니다.
장동화 · 남구 학익동



우리누나가 최고야!
누나와 5살 터울인 둘째 녀석 엄마가 혼내면, 누나한테 달려가 꼭 안깁니다. 그러면 큰딸이 “엄마 그만 하세요”하며 엄마를 말리곤 합니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야~’
이태리 · 부평구 청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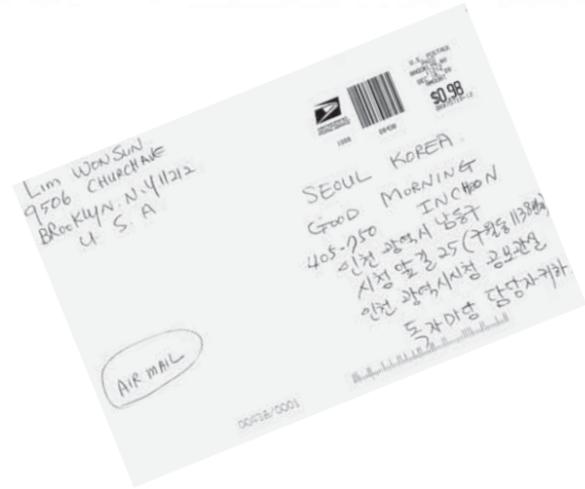
그때, 가족소풍의 추억~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곡하와리로 가족 소풍을 갔습니다. 조각상을 보며 말이 아니면, 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라고 설명했었지요. 즐거웠던 한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리웁습니다.
정연식 · 연수구 연수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로부터 온 편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격려에 힘입어 늘 최선을 다하는 <굿모닝인천> 편집팀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굿모닝인천>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생활한 지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식구들이 여기 모두 있으니 그리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매달 보내주시는 <굿모닝인천>에 고향 소식을 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2010년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바랍니다. 샬롬! 임원순 · 미국 뉴욕 브루클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매월 빠짐없이 보내주는 <굿모닝인천> 감사하게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하는 일 잘 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밝고 희망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인근 · 남동구 구월2동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사람

<굿모닝인천>을 매달 기다리는 주부입니다. 저는 인천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송림동에서 태어나 창영동에서 자라 시집가서 연수동에서 산 지 57년.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소식을 매달 자세히 접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인천인으로서 인천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윤옥선 · 남동구 논현동

인천을 널리 알려주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스물여섯살 청년입니다. <굿모닝인천>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그 공공기관에서 만나면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기구독도 하려고 합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에 사는 사람들과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 등 인천에 대한 모

든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 모두가 인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인천의 자랑거리를 많이 실어주세요. 유지훈 · 남구 주안4동

청소년도 읽는 굿모닝인천

올해 열일곱살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굿모닝인천>을 즐겨 읽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 공연들과 겨울방학을 맞아 열린 특강에 대한 안내 글을 보며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천에서 평생 살 거라고 하신 영국인 마크 헬리웰 아저씨와 인천대의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통해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굿모닝인천> 덕분에 어제는 몰랐던 인천의 모습을 알게 된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김유경 · 부평구 삼산동

느리게 돌아가는 우리 동네를 사랑해

30년을 동인천 부근에서 살아 온 인천 토박이입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추억을 되짚게 해 주는 동인천을 사랑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듯 <굿모닝인천> 1월호에서는 'IP판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 '신포동'을 다뤄 주셨네요. 재미있게 읽고 좋은 정보 답아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미애 · 동구 송현3동

인천시민의 저력, 널리 알리길

저는 <굿모닝인천>을 타 지방을 갈 때도 들고 가 공공장소에 두고 옵니다.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도 변화하는 인천을 알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굿모닝인천>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을 보며 고향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천시민이 만든 저력이 세계에 용솟음치며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인천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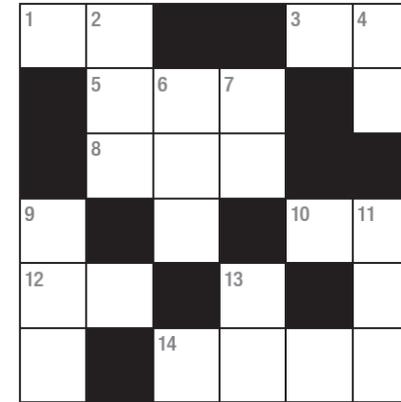
한선희 · 남구 주안6동

CROSSWORD PUZZLE

인천바로알기 퍼즐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인천바로알기 퍼즐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로열쇠

-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낸 가루. 인천예술회관에서 매월 1회 수요일마다 열리는 '○○콘서트'.
- 인천시에서 생산하여 인천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미추홀○○'.
- 2014년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에서 열리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계일'
-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 음악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장치해 놓은 방.
- 세계 4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 갠지스 문명의 발생지. 수도 델리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마지막까지 유치경쟁을 벌인 도시이기도 함.
- 보라색 껍질로 덮인 알맹이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여름 과일.
- 인천시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 아동 · 정신지체 장애인 및 보호자를 돕기 위해 문 연 아동센터. 태양을 향해 피는 꽃의 이름이기도 하다.

세로열쇠

- 대표적인 건반악기. 검은건반과 흰건반으로 이루어져있다.
- 물건에 물을 들이는 물질
- 무청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쓴다.
-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동. <굿모닝인천> 1월호 Old but New 코너에 'IP판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로 소개되었다.
- 흙을 빚어 높은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그릇이나 장식물.
- 쿠바의 민속 춤곡. 활기차고 빠른 4분의 2 박자의 리듬에 마라카스 따위의 타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 박미순(시흥시 대야동) 독자님께서 문제를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1월호 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하여 알립니다.

<정답>



- | | |
|----------------|--------------------|
| 최은정 · 서구 가좌1동 | 한수자 · 부평구 부평1동 |
| 윤명임 · 남구 송의4동 | 이주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
| 채철영 · 남구 용현 2동 | 전동우 · 서구 가정2동 |
| 김해림 · 남구 학익2동 | 강미숙 · 남동구 구월1동 |
| 예병철 · 계양구 임학동 | 김다혜 · 부평구 부평1동 |

독자글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점과 인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인천바로알기 퀴즈에도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책에 글과 퀴즈가 실린 분께는 문화상품권(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은 1매, 퀴즈정답 응모는 매월 열분을 추첨하여 각 1매, 퀴즈문제 작성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단, 퀴즈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보내주실 곳 :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정앞길 25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미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6)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미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설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Korean



- A: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B: 저는 고향에 내려가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모여 설음식을 나눠먹고, 전통놀이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해요.
A: 좋으시겠어요.
저는 설을 맞아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공원에 가보려고 해요.
B: 좋은 생각이네요. 미추홀공원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공원이지요.
A: 맞아요. 미추홀공원은 누각과 전통문화관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서예와 다례 등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B: 멋진데요. 미추홀공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랄게요.
A: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nglish



- A: The biggest national holiday, Lunar New Year's Day is coming.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year?
B: I'm going to my hometown,
I'm going to see my family and friends.
We're going to spend some quality time together playing traditional games and eat Lunar New Year's Day food.
A: That sounds fun,
I'm going to Michuhol Park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B: That's a good idea. Michuhol Park is a park that presents Korean culture and its history.
A: That's right. Michuhol Park is known for its Korean traditional house called, 'Nugak,' cultural center, and tea garden.
You can experience traditional tea ceremony as well as view calligraphy.
B: That's wonderful, I hope you have a good time at Michuhol Park.
A: Thank you. I hope you spend a great Lunar New Year's Day, and Happy New Year.

번역 Jehni Kim 인천영어마을 강사

Chinese



- A: 快要到民族最重要的节日春节了。
这次春节打算做什么?
B: 我要回老家。
想和好久没见的家人、亲戚一起吃年夜饭, 玩传统游戏一起开开心心的过年。
A: 很好啊。我春节要去看松岛国际城市的彌鄒忽公园。
B: 好主意。彌鄒忽公园是有丰富的韩国历史和文化的传统公园。
A: 对。彌鄒忽公园是拥有楼阁、传统文化馆和茶苑等相得益彰的美丽公园。
还可以体验书法和茶艺等传统文化。
B: 真棒。希望你能在彌鄒忽公园留下美好的回忆。
A: 谢谢。新年快乐, 恭喜发财。

번역 김성은 중국어마을 강사

Japanese



- A: 民族最大のイベント、お正月がもうすぐですね。
このお正月には何をする計画ですか?
B: 私は実家に帰ります。
久しぶりに家族や親戚と集まってお節料理を食べたり、
伝統的な遊びもしながら和気あいあいと時間を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
A: いいですね。
私はお正月に松島(ソンド)国際都市にあるミチュホル(彌鄒忽)公園に行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B: それはいいですね。ミチュホル(彌鄒忽)公園は、韓国の歴史と文化が感じられる伝統公園ですね。
A: そのとおりです。
ミチュホル(彌鄒忽)公園は、楼阁(ろうかく)や伝統文化館などが調和をなす美しい公園です。
書道やお茶会などの伝統文化も体験できます。
B: すてきですね。ミチュホル(彌鄒忽)公園でよい思い出をつくってください。
A: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よいお正月を送ってください。新年もお元気で。
번역 김지영 시 국제협력관실 김수 나카무라 카츠야

인천의 미래는 빛이 아닌 '빛'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대교 개통으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의 지방채는 2010년 말 기준 2조7천471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GRDP 대비 4.86%로 국가 채무 GDP 대비 35.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재정관리 분석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인천의 채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인천의 내일은 변함없이 밝고 희망적입니다. 인천의 미래는 빛이 아닌 바로 '빛'입니다.